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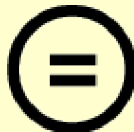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이언진의 사행 한시에 나타난 일본 인식

-〈日岐島〉〈日陽舟中念惠寰老師言〉〈海覽篇〉을 중심으로-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이언진의 사행 한시에 나타난 일본 인식
-〈日岐島〉〈日陽舟中念惠寔老師言〉〈海覽篇〉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고 순 희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윤경옥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월 7일



주	심	문학박사	곽진석	인
위	원	문학박사	최호석	인
위	원	문학박사	고순희	인

목 차

I.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7
II. 계미사행과 사행 한시	12
1. 이언진과 계미사행.....	12
2. 사행 한시의 특징	23
III. <壹岐島> <壹陽舟中念惠寔老師言> <海覽篇>의 일본 인식 ...	34
1. 문화적 우월 인식 : <壹岐島>.....	34
2. 종교적 華夷 인식 : <壹陽舟中念惠寔老師言>.....	42
3. 사회적 현실 인식 : <海覽篇>.....	51
IV. 문학사적 의의	71
V. 결론	80
참고문헌.....	83
영문초록.....	89

국 문 초 록

이언진(1740-1766)은 1763년 계미사행에 참여한 역관이자 시인이다. 그는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중국 등 외국의 문물을 접하면서 국제적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19세 역과에 합격하여 중국을 두 번 연행하고 일본을 다녀왔지만 일본에서 얻은 풍토병으로 귀국 후 2년 만에 요절하고 만다. 이언진은 사대부 문인 이용휴에게 수학하면서 사상적·문학적 영향을 받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하였다. 그는 사행 경험을 통해 그의 일본 인식과 문학관을 사행 한시로 나타내었다. 이언진의 사행 한시는 조선 사회에서 그의 존재감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작품에 나타난 그의 일본 인식은 소중화적 화이관에서 벗어나 일본에 대한 열린 자세와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며 조선 사회가 나아가야 할 현실적인 대일 외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언진의 사행 한시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묘사로 일본에 대한 사실적 기록과 그의 감상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난다. 조선의 문예 부흥기에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이언진이 보여준 일본 인식은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그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행 한시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일본의 문화·종교·사회적 측면에서 작가 인식이 뚜렷한 <壹岐島> <壹陽舟中念惠實老師言> <海覽篇>을 중심으로 이언진의 일본 인식을 살펴보았다. 형식, 표현, 그리고 내용의 특징을 살피고 이언진의 문화적 우월 인식, 종교적 華夷 인식,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현실을 인식하는 이언진의 긍정적인 일본 인식을 밝혀 보았다. 18세기 조선의 소중화적 흐름 속에서 전진적인 그의 일본 인식은 19세기 개항하는 조선의 대일 인식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 일본 인식, 계미사행, 사행 한시, 소중화, 華夷, 긍정적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역관 李彦瑱(1740-1766)은 1763년 11차 계미통신사행에 참여하여 일본 문사들과 나눈 필담을 계기로 일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명성을 얻게 되었다. 사행 당시에 일본의 유명한 승려나 귀족들은 그의 文才를 칭송하였고¹⁾ 나중 돌아오는 길에 이언진이 지은 시들이 인출되었을²⁾ 정도로 일본에서 그의 詩名을 떨쳤다. 사행 이후 이언진은 몇몇 문사들에게 사행 한 시를 보여주었고 朴趾源(1737-1805) 등 국내에서도 주목받게 되었다. 박지원은 이언진의 생전에는 비록 그의 시문을 혹평했지만 이언진의 나이가 어리니 바른 길로 나아가라³⁾는 뜻이었다며 <우상전>을 지어 27세에 요절한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이언진은 역관으로서 나라 밖에서 조선 사회의 내면을 관찰할 기회를 가

1) “우상은 한어 통역관으로 수행하여 문명이 일본에 크게 떨쳤다. 그 나라의 유명한 승려나 귀족들은 모두들 ‘아, 운아 선생이야말로 둘도 없는 큰 선비다’라고 칭송하였다.” 이언진 지음, 정훈 역주, 『국역 松穆館燼餘稿』, 신아출판사, 2004, 52면.

“虞裳以漢語通官隨行 獨以文章 大鳴日本中 其名釋貴人 皆稱雲我先生 國土無雙也”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252』 『松穆館燼餘稿』, 민족문화추진회, 2000, 488면.(작품과 면수만 표기한다.)

2) “시는 모두 전할 만하다. 돌아오는 길에, 지난 번 지났던 곳에 이르니 그의 시가 이미 발간돼 있었다.” 정훈 역주, 위의 책, 56면.

“皆可傳也 及既還 過所次皆已梓印云” <松穆館燼餘稿>, 489면.

3) “아! 나도 마음속으로는 그의 재주를 사랑하였지만, 그의 기운을 꺾은 것은 우상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후세에 저서를 남길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정훈 역주, 앞의 책, 56면.

“余嘗內獨愛其才 然獨挫之以爲虞裳年少俛就道 可著書垂世也” <松穆館燼餘稿>, 489면.

졌다. 조선 사회의 화이론적 인식에 기반을 둔 이언진은 일본 사행을 통해서 서구 문물이 전래되는 일본의 현실을 목도하였으며 일본의 변화한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참여한 11차 癸未使行(1763-1764)⁴⁾은 에도까지 간 여정으로는 마지막 사행이었다. 이 사행에서는 양국의 시문 창화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졌고, 단일 사행으로는 가장 많은 수의 사행록이 지어졌다.⁵⁾ 이런 점에서 계미사행은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절정’으로 평가된다.⁶⁾ 조선통신사의 마지막 사행이었던 12차 辛未使行(1811)은 대마도에서 이뤄진 易地聘禮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미사행이 통신사의 마지막 사행이라고 볼 수 있다. 계미사행은 대마도에서 에도까지 일본 전역에 걸쳐 일본의 정세와 변화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미사행보다 더 중요하다. 계미통신사들은 중화사상에서 벗어나 근대 국가로 도모하는 일본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18세기 일본은 1643년부터 예수교인들이 일본에서 포교해오고 있었고, 쇄국 정책에서 다시금 영국의 해외 활동 등 문호개방을 시도하며 당시 徳川幕府의 붕괴 조짐⁷⁾이 만연해 있는 등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런 변화는 통신사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新井白石의 易地通聘建議가 통신사의 접대 경비를 줄인다는 경제적 이유⁸⁾ 등으로 12차 신미사행이 역지방례로

4) 제10대 장군 徳川家治가 습직했다는 연락을 받은 조선은 1763년 조엄을 정사로 한 약 500명 규모의 사행단을 파견했다. 1763년 7월 24일 영조를 배알하고 8월 3일 발행하여 8월 22일 부산에 도착했다. 10월 6일 부산을 출발하여 1764년 2월 16일에 강호에 도착, 국서를 전달했다. 3월 11일 회로에 올라 6월 22일에 부산에 도착하고, 7월 8일에 영조에게 복명했다. 김보경, 「계미사행 조선 문사들의 江戸체험과 그 의미」, 『한문학보』 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118면.

5) 조엄의 『海槎日記』, 남옥의 『日觀記』 · 『日觀詩草』 · 『日觀唱酬』, 성대중의 『日本錄』, 원증거의 『乘槎錄』 · 『和國志』, 김인겸의 『日東壯遊歌』, 오대령의 『溟槎錄』, 민혜수의 『槎錄』, 卞琢의 『癸未水槎錄』, 작자미상 『海行日記』.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사, 2006, 44면, 표참조.

6) 김보경, 앞의 논문, 119면.

7) 민두기,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1969, 171면.

8)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261면.

진행되었던 것이다. 신미사행(1811)의 역지병례는 일본의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이후 사행이 중단된 점은 일본에서 조선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문학적인 면에서도 제술관과 삼서기들이 많은 수의 시를 지어 시문 창화로써 文化施惠國임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일본 문사들 사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일본 문사 일부는 조선 문사들이 수십 편의 시를 붓 가는 대로 화운하니 제대로 된 시가 없음⁹⁾을 비판하는 풍조가 일본 문학사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조선 통신사는 1607년 1차 回答兼刷還使로 시작하여 총 12차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사행이다. 그 중 이언진이 참여한 11차 계미사행(1763)은 150년이 경과한 시기로 그 동안 일본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많이 축적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본 내 정세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¹⁰⁾ 일본의 사회·학문·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통신사절단이 남긴 기록을 보면, 조선 사신들은 사행 동안에도 소중화적 우월 의식으로 일본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언진은 사행 동안에 예리한 관찰력으로 변화하는 일본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읽어내며 열린 시각으로 현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역관 시인이었다. 이언진은 틀에 박힌 조선 사회의 문학적 풍토에 반발하고 당시 사회 규범의 주축을 이룬 유교 이외에도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두어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하였다. 이언진은 사행을 통해 일본의 실상을 파악하고 나라 밖에서 조선을 바라보며 대외적인 교류 관계를 인식하였다. 일본 사행에서 기록한 이언진의 사행 한시는 과거의 역사나 기존

9) 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3』, 학고방, 2008, 73-74면.

10)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337-338면.

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열린 인식으로 이국의 경물이나 사람들을 바라보고 감동하였음이 나타난다.¹¹⁾ 이언진의 사행 한시에 나타난 시적 소재 사용과 감상은 참신한 것으로 다른 문사들의 작품과는 달리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여 변모하는 시대의 문학에 좀 더 접근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¹²⁾

이언진은 역관으로 漢學押物通事의 직무를 맡아 사행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문 창화의 부담이 없었고 기본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언진은 유가의 경서 뿐 아니라 불교, 도가, 패관잡기, 서양서 등 다양한 독서로 박학다식한 문학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배경은 이언진이 일본의 참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한학역관으로서 중국을 두 번 다녀온 경험이 다른 조선 문사들에 비해 일본의 현상을 국제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문학적으로도 이언진은 스승 李用休(1708-1782)에게 수학하면서 당시 조선 문단의 唐詩 모방과 의고주의를 비판하며 천편일률적인 문학을 경계하고 시인의 개성적인 眞詩를 써야 한다¹³⁾는 가르침을 받아 이언진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를 썼다는 점에서 열린 시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한 이언진의 사행 한시는 동시대 문인이었던 박지원과 李德懋(1741-1793) 등에게 높이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계

11) 이혜순, 위의 책, 351면.

12) 조선후기 대표 실학자였던 이덕무는 이언진의 사행시에 대해 평가하기를 “우상의 시는 깊고 넓으나 넘치지 않고 그윽하고 기이하나 괴벽하지 않고 매우 뛰어나지만 공허하지 않고, 간략하나 짧지 않고 또 붓 기운이 고아하고 굳세다. 일기 세 장은 격식을 벗어난 중에도 뛰어나게 아리따운 태도가 넘쳐흐르니 정히 보통 사람의 글은 아니다.(虞裳之什淹博而不濫 幽奇而不癖 超悟而不空 裁制而不短 且筆氣蒼勁 日記三紙 破碎中逸媚橫生 正是人外物 이덕무, 『靑莊館全書』 卷48, <耳目口心書>1. 한국고전번역원DB.)”라고 하여 실학자에게 이러한 평을 받은 것을 보면 이언진의 사행시가 참신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3) 박준호, 「해환 이용휴 문학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9, 81면.

기도 바로 그의 일본 사행 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언진의 일본 인식은 華夷觀에만 머물지 않아서 기존의 청나라와 중화주의에 치우친 조선 문인들과는 차별화된 그의 문학 세계를 살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행 한시 전반을 살펴보는 것은 일본 인식과 함께 그의 문학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행 한시의 내용에는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인 것보다는 사회·문화·종교 등 일본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근원적인 일본 인식을 담고 있어 이언진의 일본 인식을 체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언진에 대한 연구가 조선 사회 안에서는 여향문인으로서 중인문학¹⁴⁾의 범주에서 논의되었다. 조선 밖에서는 역관시인으로서 이언진의 세계 인식에 대한 연구로 강동엽¹⁵⁾을 필두로 하여 일본 통신사에 관한 이언진의 연구¹⁶⁾가 이루어졌다. 사행으로 건문 확대를 통한 주체적 자의식을 지닌 이언진의 세계 인식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¹⁷⁾ 이언진의 세계 인식은 일본 문사들과 교류한 필담집에 잘 반영되어 있고 이를 통해 개방적인 이언진의 문학 세계를 살펴 볼 수 있었다. 특히 최근에 발굴된 이언진의 필첩 『虞裳剩馥』¹⁸⁾의 비점본 <海覽篇>과 편지 5통, 사행일기 6편에서

14) 강명관, 「조선후기 여향문학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1.

이상진, 「조선후기 여향문학의 전개과정과 문예인식」,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2.

정후수, 『조선후기 중인문학연구』, 깊은 샘, 1990.

15) 강동엽, 「<우상전>에 투영된 이언진과 그의 세계인식」, 『건국어문학』 19집, 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16) 구지현, 「이언진과 일본문사교류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23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구지현, 「계미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6.

박기석, 「<우상전>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정 민, 「『東槎餘談』에 실린 이언진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17) 한태문, 「이언진의 문학관과 통신사행에서의 세계인식」, 『국어국문학』 34집, 문창어문학회, 1997.

18) 강순애·심경호·허경진·구지현, 『우상잉북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문화사, 2008.

강순애·심경호·허경진은 비점본 <海覽篇>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였고 구지현은 사행 일기를 통해 이언진의 일본에서의 행적을 살필 수 있었다.

최근 이언진의 사행 한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海覽篇>에 다소 치우치며 그의 세계 인식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언진이 일본을 사행하면서 일본의 풍물·자연·인물·사회·종교·문물 등 다방면에서 체득한 그의 일본 인식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이언진의 일본 인식은 그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본 문사와의 시문 창화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은 그는 일본에서 자유로운 세계관을 문학에 펼쳤다. 이언진은 조선을 대표하는 사신의 업무로 경직되어 일본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의 외교적 관점의 틀에서 벗어나 일본인의 생활 속에서 일본의 참모습을 인식하였다. 그는 개인적인 시각으로 일본의 현실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었고 감상과 소회를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 일본의 사실적 기록과 그의 감상을 사행 한시에 반영된 이언진의 일본 인식은 개인의 문학적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적인 검토는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언진이 표현 양식으로 선택한 사행 한시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다른 사행 한시에 비해 일본의 문화·종교·사회적 측면에서 작가 인식이 뚜렷한 <壹岐島> <壹陽舟中念惠賓老師言> <海覽篇>을 중심으로 이언진의 일본 인식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언진의 사행 한시 전반에 걸친 형식상·표현상·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세 편의 한시를 중심으로 이언진의 문화적 우월 인식과 종교적 華夷 인식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현실을 인식하는 이언진의 긍정적인 일본 인식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그리고 계미사행을 통해 조엄을 비롯한 제술관 및 서기 등 관리들이 외교적 차원에서 인식한 일본을 개인적 차원에서도 고찰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일본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2장에서는 이언진의 작품 배경이 되는 계미사행과 사행 한시 특징을 개관한다. 3장에서는 <壹岐島> <壹陽舟中念惠賓老師言> <海覽篇>의 전체적 내용 분석을 통해 이언진의 일본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4장에서는 정사 조엄을 비롯한 제술관 및 삼서기들의 일본 인식과 비교하여 이언진의 일본 인식이 갖는 계미사행의 의미와 문학사적 의의를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언진의 문집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에 수록된 서울대학교 奎章閣藏本 『松穆館燼餘稿』¹⁹⁾와 국립중앙도서관 일반문고본 『松穆館燼餘稿』를 정훈이 역주한 『국역 松穆館燼餘稿』²⁰⁾를 기준으로 한다.²¹⁾

2. 연구사 검토

이언진은 뛰어난 文才로 역관사가²²⁾라 불리는 여항문인으로서 조선 사회에서 겪는 엄격한 신분 질곡에 따른 사회적 모순을 육언절구 <衚衕居室>에서 나타내었다. 이언진의 연구는 조선 사회의 제도에 대한 저항 정신과 그로 인한 독특한 문학 세계를 주로 <호동거실>²³⁾을 중심으로 활발히

19) 서울대학교 奎章閣藏本 『松穆館燼餘稿』는 저자에 의해 불타고 남은 유고의 잔편을 후손 李鎭命과 宗人 李慶民 등이 수집하여 철종 11년(1860)에 印行한 활자본이다. 분량은 不分卷 一冊으로 總 53板이다. 이용휴의 序, 本傳(박지원의 <虞裳傳>, 김조순의 <李彦瑱傳>, 이덕무의 <李虞裳>), 五·七言詩, 六言詩, 贊, 銘, 尺牘 순으로 편집되었고 김숙과 장지완의 跋文이 있다.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252』, 민족문화추진회, 2000.

20) 이언진 지음, 정훈 역주, 『국역 松穆館燼餘稿』, 신아출판사, 2004.

21) 서울대학교 奎章閣藏本 『松穆館燼餘稿』와 국립중앙도서관 일반문고본 『松穆館燼餘稿』의 본문은 동일하여 번역은 정훈의 『국역 松穆館燼餘稿』로 한다.

22) 역관사가는 홍세태, 이언진, 정지윤, 이상적으로 중인문학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23) 김기중, 「<호동거실>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2.

김동준, 「이언진 한시의 실험성과 <호동거실>」, 『한국한문학연구』 39집, 한국한문

이뤄지고 있다. 조선 사회 안에서 이언진은 사회적 굴레로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였으나 사행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文才가 빛을 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언진에 대한 당·후대 문인들의 글²⁴⁾은 이언진의 사행 한시에 대한 평으로 그의 일본 인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일본 사행과 관련한 이언진의 연구는 크게 일본에서 지은 사행 한시와 이언진과 필담을 나눈 일본 문사 申維翰(1681-1752)의 필담집 『東槎餘談』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행 한시와 관련된 이언진의 세계 인식에 대한 논의는 강동엽²⁵⁾을 필두로 <虞裳傳>에서 이언진이 서양을 인식하여 일본의 현실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상대의 관점에서 자신을 이해하려는 상대주의적 세계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강동엽은 이언진의 세계 인식을 처음 제시하여 그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이언진의 세계 인식은 박지원의 인식 체계를 말하기 위한 부수적인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행 한시에 나타난 이언진의 세계 인식을 통해 박지원의 세계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이언진을 주변 인물로 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학회, 2007.

박갑원, 「우상 이언진의 시세계」,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6.

박희병, 『저항과 아만』 : <호동거실>평설, 돌베개, 2009.

손영화, 「우상 이언진의 <호동거실>에 나타난 불우의식」, 『개신어문연구』 31집, 개신어문학회, 2010.

이동순, 「이언진 시의 독창성 고찰」, 『한국고전연구』 1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이동순, 「이언진 문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이승수, 「도시문화의 모세혈관, 골목길의 발견: 이언진의 <호동거실>연작 소고」, 『한국고전문학연구』 254집, 한국고전문학회 40주년기념, 2010.

정 훈, 「우상 이언진의 한시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95.

24) 朴趾源『虞裳傳』, 金祖淳『李彦瑱傳』, 趙熙龍『李相藻傳』, 李尙迪『李虞裳先生傳』, 李德懋『淸脾錄』, 李用休『松穆館集序』, 金瀾『松穆館燼餘稿跋』, 長之琬『題松穆館稿後』 등

25) 강동엽, 「<우상전>에 투영된 이언진과 그의 세계인식」, 『건국어문학』 19집, 건국대 국어국문학회, 1995.

한태문²⁶⁾은 사행을 통한 견문 확대로 주체적 자의식을 지닌 이언진의 세계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언진의 개방적인 의식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무한한 포용성으로 일본을 적극 고양하고 현실적인 대일 외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이언진이 일본의 견문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조선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데에 의의를 둔다. 그리고 『松穆館集』에 실린 사행시 11제 42수의 시를 명료하게 제시하여 사행 한시 전편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행 한시 <일기도> <해람편>을 일부분만 다루고 있고 全文을 분석하지 않아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한태문은 사행 한시에서 이언진이 현실적인 대일 외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작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정 민²⁷⁾은 일본 문사 유유한의 필담집 『東槎餘談』에서 이언진과 유유한의 필담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의 문학 풍조와 왕세정과 이반룡을 숭상한다는 이언진의 문학 세계를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필담집을 통해 조선 문사들의 문학적 우월주의와 계미사행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 인식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최근에 이언진의 필첩 『虞裳剩馥』이 발굴되면서 작품에 수록된 비점본 <해람편>, 편지 5통과 사행 일기 6편에 대한 연구가 논의되었다. 비점본 <해람편>은 이언진이 일본 사행 후 국내에서 남옥과 이용휴에게 <해람편>을 보여주고 비점을 쳐서 평가받은 작품이다. 강순애²⁸⁾는 이를 대상으로 <해람편>을 개관하였다. <해람편>의 기록 날짜, 단계별 주요내용,韻

26) 한태문, 「이언진의 문학과 통신사행에서의 세계인식」, 『국어국문학지』 34집, 문창어문학회, 1997.

27) 정 민, 「『東槎餘談』에 실린 이언진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28) 강순애, 「우상 이언진의 비점본 <해람편>연구」, 『우상잉복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문화사, 2008.

字, 『松穆館集』 <해람편> · 『松穆館燼餘稿』 <해람편>과 비교하여 교정된 내용을 분석하고 비점본 <해람편>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심경호²⁹⁾, 허경진³⁰⁾, 구지현³¹⁾의 논문도 『우상잉복』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사행 일기 6편을 통해 일본 여정에서 이언진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었고 편지 5통은 성대중이 이언진에게 시문 요구를 하여 연암학파가 성대중을 통해 이언진과 간접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우상잉복』에 관련한 논문들은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본다.

일본 사행과 관련한 이언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사행 한시 <해람편>에만 치중되어 있다. 사행 한시에는 오언고시 <祭海神> <海覽篇> <贈人>, 칠언고시 <余八月踰嶺觸目田園皆詩中境也馬上口占> <壹岐島> <壹陽舟中念惠賓老師言>, 오언율시 <痔臥壹岐島舟中 痔臥壹岐島舟中 風聲水聲雨聲蛙吠聲舉集燈下 人間世牢騷鬱陶至矣 間聞老奴寢語說 園圃中事情不得不動 而喉不得不癢矣 吐而筆之 錯亂無序 其言萬里行李之所經者 什一平生志業之所存者十九 一切無摸擬心矜伎 心恬波鼓樵以自取適耳 12수> <斜陽明窓蟬聖滿樹 20수>, 칠언율시 <客中秋夕>, 육언절구 <日本途中所見 22수> <自題日本詩集> 등 여러 작품을 감안하면 <해람편>에만 편중되어 연구되고 있다.

사행 한시는 일본 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어졌고 낯선 풍물과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사실을 기록한 사행록이다. 공식적 외교 보고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사적인 감상문의 성격을 지닌 기행 문학이다. 궁극적으로 사행 한시는 문학적 형식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문물이

29) 심경호, 「『우상잉복』의 서지문헌학적 고찰과 수록 시문에 나타난 이언진의 내면의식 탐구」, 『우상잉복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문화사, 2008.

30) 허경진, 「『우상잉복』에 실린 <해람편>의 가치와 문집 편찬과정에 대하여」, 『우상잉복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문화사, 2008.

31) 구지현, 「『우상잉복』 소재 사행일기에 보이는 이언진의 일본 행적」, 『우상잉복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문화사, 2008.

나 사물에 대한 자세한 묘사 이면에는 자신만이 보는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견문을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³²⁾ 따라서 이언진의 내면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다뤄진 연구를 보완하여 일본 인식을 통찰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중요하다.



32) 이균선, 「使行詩의 특징과 전개양상」, 『동방한문학』 42집, 동방한문학회, 2010, 37면.

II. 재미사행과 사행한시

이언진의 사행 한시는 일본 기행이라는 내용적 측면과 함께 문학작품으로서 당대 문인들의 평가는 그의 문학 세계에 대한 척도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스승이었던 이용휴와 박지원, 이덕무 등 사대부 세력과 일부 실학자들이 인정한 그의 사행 한시는 이언진의 일본 인식을 넘어서 그의 문학 세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된다. 역관 이언진은 재미사행 이후 중앙 주류 세력에 이르기까지 명성을 드날렸다는 점에서 사행 한시의 가치를 엿볼 수 있다. II장에서는 이언진의 생애, 문학적 영향을 받은 이용휴와의 사승관계, 재미사행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살피고 조선 문인들의 평가로 재미사행에서 그의 사행 한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사행 한시에 나타난 이언진의 일본 인식이 어떤 특징으로 전개되며 그에 따른 사상적 배경이 무엇이고 이언진이 일본을 인식하는 데에 어떤 자세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이언진과 재미사행

11차 재미사행은 1760년 4월 1일 일본의 제10대 장군 徳川家治의 습직을 축하하기 위해 1763년 8월 3일 조엄을 정사로 하여 1764년 7월 8일 영조를 복명하는 기간 동안 477명을 일본에 파견한 사행이다.³³⁾ 이언진의 일본 사행의 계기는 그의 문학적·사상적 토대에서 비롯됐다. 이언진은 李瀾

33) 정영문, 「『海槎日記』 연구」, 『온지논총』 10집, 온지학회, 2004, 69면.

(1681-1763)의 조카인 이용휴에게 수학하였으며 그의 從弟인 李孟休(1713-1751)³⁴⁾가 당시 대외 교린관계를 책임지던 禮曹正郎에 부임하자, 이용휴는 이언진을 자연스럽게 일본 사행으로 이끌었던 것이다.³⁵⁾ 이용휴는 막내 숙부인 이익에게 학문을 배우면서³⁶⁾ 함께 수학한 이맹휴와 학문적 동질성을 가졌다고 본다.

이언진의 문학적 삶은 재미사행으로 성숙되었다. 사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문학적 인연을 맺고 있었다. 그는 英祖 때의 인물로 譯官이자 詩人이다. 자는 虞裳이고 호는 松穆館, 雲我 또는 滄起이다. 本貫은 江陽으로 李開의 후손이다. 祖父인 世倂으로부터 역관 집안이 되었으며 그의 아버지 德芳이 關侯의 사당에 문장 잘하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이언진은 학문을 존중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英祖 35년(1759)에 譯科에 합격하여 1763년 한학 역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그러나 귀국 후 일본에서 얻은 풍토병으로 2년 뒤 27세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죽기 전 그는 모든 초고를 직접 불살라 일본 기행에 대한 작품이 별로 없으나, 불태울 때 아내가 빼앗아 둔 일부의 유고가 『松穆館燼餘稿』이다.³⁷⁾

이언진은 재미사행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스승 이용휴였다. 사행을 추천한 이용휴는 이언진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³⁸⁾ 사행을 통해 명성을 성

34) 이맹휴(1713-1751)는 1744년 (영조20) 예조정랑이 되어 조선시대의 외교에 관한 제사례를 수집한 『春官志』와 『接倭歷年攷』를 편찬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조선의 대일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통신사일행의 보고 등 당시의 대일관계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이익은 맹휴를 통해서 한일 외교관계의 자료나 일본서적 등을 얻어 보았으며, 일본문제에 관한 그의 저술에서 맹휴의 견해를 가끔 인용하였다.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해안, 2006, 226면.

35) 한태문, 「이언진의 문학과 통신사행에서의 세계인식」, 『국어국문학회지』 34집, 문창어문학회, 1997, 50면.

36) 박준호, 「해환 이용휴 문학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9, 15면.

37) 강순애, 「우상 이언진의 비점본 <해람편>연구」, 『우상잉복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문화사, 2008, 11-12면.

38) 이덕무는 <虞裳傳>에서 그의 시에 대해 “일찍이 이용휴에게 시를 배웠는데 마음으로 본받고 숨씨를 흉내 내어 그의 오묘함을 모두 배웠고 비루함을 말끔히 씻어내고 따로

취한 이언진에게 문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성호학파의 대표 문인이었던 이용휴는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시를 강조하였다. 그의 문학관은 오랜 학습과 연마를 통해 자신만의 시세계를 개척하여 독자적 경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³⁹⁾ 이용휴는 이언진에 대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따르는 자는 비루하여 논할 필요도 없거니와, 자기의 견해를 드러내는 자라 할 지라도 고집과 편벽이 섞이지 않아야 참다운 견해가 된다. 또 반드시 참된 재주가 뒷받침되어야 이름이 있다. 내가 이런 이를 구한 지 수년만에 송목관 주인 이우상을 얻었다”⁴⁰⁾라고 하여 이언진의 독창적인 詩才를 아끼고 칭찬하였다. 이용휴는 자신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넘어서 근원적으로 이언진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의 시재를 높이 샀다. 이덕무는 이용휴에 대해 말하길 “그는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도 글을 제대로 쓰는 자가 없는데, 유독 이언진만을 허여하여 마음 깊이 인정하였다. 어떤 이가 이언진의 재주를 물으니, 이용휴는 문득 손바닥으로 벽을 쓰다듬으며 ‘벽을 어찌 걷거나 지나갈 수 있겠는가. 이언진은 벽과 같다’고 하였다.”⁴¹⁾ 이와 같이 이용휴는 이언진이 중인 신분일지라도 개의치 않고 오직 그의 文才를 인정해 주었다.

靈異함을 갖추었으며 고금을 꿰뚫어 보았기에 안목이 달과 같이 밝았다”고 하였다. 강순애, 앞의 책, 14면, 재인용.

“李彦瑱一自名湘藻 字虞裳 譯官也 性慧奧 博極群書 聰記絕世 嘗學詩于李惠賓用休 心摹手追 盡得其妙奧 惠賓 洞先凡陋別其靈異 橫豎今昔 眼珠如月” 李德懋, 『靑莊館全著』卷34, 「淸脾錄」3, <李虞裳條>

39) 김동준, 「이용휴 한시와 이언진 한시의 대비론」, 『한국한시연구』15집, 한국한시학회, 2007, 82면.

40) 정훈 역주, 『국역 松穆館燼餘稿』, 신아출판사, 2004, 49면.

“從人起見者 鄙無論 則從己起見者 母或雜之固與偏 乃爲眞見 又必須眞才而輔之 然後乃有成焉 予求之有年 得松穆館主人李君虞裳” 『松穆館燼餘稿』<松穆館集序-惠賓李用休>, 487면.

41) “幾乎東方無一操觚摘翰者 獨深許虞裳 心無間然 人或問虞裳之藝 賓惠輒以掌摩壁曰 壁豈可步涉哉 虞裳猶壁也 嘗序松穆館集曰” 李德懋, 『靑莊館全書』卷34, <淸脾錄>3, 고전번역원DB.

이용휴는 사행을 떠나는 제자에게 준 시에서 “學識은 온갖 책에 통했고 職能은 兩國語에 능통했네. 재주가 쓰이지 못함이 안타깝구나, 세상일은 매양 이러하던가”라 하여 백가서와 외국어에 통달했던 그의 학문이 그저 譯官으로만 쓰이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였다.⁴²⁾ 이용휴는 이언진의 뛰어난 文才를 알아주고 자신만의 개성적인 시를 짓는 그를 인정하였다. 그는 이언진의 독창적인 詩才를 일본에서 펼쳐 보일 기회를 주고 이국에서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도록 이언진에게 일본행으로 권유한 것으로 짐작된다.

계미사행에서 이언진의 일본 인식은 그의 문학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언진의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문학관은 일본을 인식하는 사상적 측면에서 성호학파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열린 시각으로 연결된다. 이용휴의 스승이었던 이익은 당시 18세기 중엽 의식의 전환을 선구적으로 주도한 실학자이다. 이익은 일본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일본 사회의 실상과 변화 양상에 주목하였다. 일본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며 일본이 군사적 강국이며 물산이 풍부하고 무기 등의 제조기술이 조선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것을 제창하였다.⁴³⁾ 적개심을 가지고 일본을 이적시 하는 조선 전통적 일본관에서 일본 문화를 인정하는 이익의 사상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익의 긍정적인 일본관과 근대 문물의 대일 관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던 이맹휴로 인해 이용휴는 일본을 관념적으로 인식하기보다 현실적인 일본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일본을 夷狄國이라 멸시하고 사행을 가는 것조차 적대감을 내보이던 조선 문사들에 비해 이용휴가 이언진을 일본 사

42) “學通百家書 職通兩國語 可惜用違才 世事每如許”, 『惠實詩集』 卷7, 「送李君虞裳隨通信使入日本」 4. 박준호, 앞의 논문, 1999, 32-33면. 재인용.

43)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2006, 226-227면.

행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그의 일본 인식이 일본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언진은 이용휴로 인해 문학적으로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시를 추구하였으며 그 사상의 기저에는 개방성과 참신성이 바탕이 되어 일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형성하는 긍정적 인식의 배경이 되었다. 그는 조선에서 에도까지 일본 전역을 사행하면서 도시마다 특색이 다른 일본 지역의 풍물, 자연 경물, 지리, 일본인의 생활 모습, 사람들의 옷차림, 말씨 등 외견상으로 보이는 일본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언진의 사행 한시는 단순한 사실 기록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인들의 사소한 일상 생활 속에서 이국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한 그의 일본 인식이 나타난다. 일본의 경험 이 없는 조선 지식인들에게 일본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의 시문을 평가받고자 했던 이언진의 의도는 박지원의 <우상전>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수백 년 동안 사신의 행차가 자주 에도를 내왕하였다. 그러나 사신으로서 체통을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치중하느라 그 나라의 민요, 인물, 요새, 강약의 형세에 대해서는 마침내 털끝만큼도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왔다 갔다만 하였다. 그런데 우상은 힘으로는 붓대 하나도 이기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 나라의 정화를 붓끝으로 남김없이 빨아들여 섬나라 만리의 도성으로 하여금 산천초목이 다 마르게 하였으니, 비록 ‘붓대 하나로써 한 나라를 무너뜨렸다.’고 말하더라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⁴⁴⁾

박지원은 그동안 조선통신사의 일본 왕래는 수차례 있었지만 이언진만큼

44) 박지원 지음,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下, 돌베개, 2007, 207면.

“數百年之間 使者冠蓋 數至江戸 然謹體貌 嚴使事 其風謠人物險塞強弱之勢 卒不得其一毫 徒手來去 虞裳力不能勝柔毫 然吮精嘖華 使水國萬里之都 木枯川渴 雖謂之筆拔山河可也.” 朴趾源, 『燕巖集卷之八別集』, <放瑯閣外傳-虞裳傳>, 한국고전번역원DB.

일본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동시에 조선 문사들이 체통을 지키며 일본의 실상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문화적 우월주의에 빠진 前代의 통신사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언진은 조선을 대표하여 국위 선양해야 하는 의무감이 없었기 때문에 사행에서 일본을 관찰하는 데에 자유로웠으며 역관의 국제적 안목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일본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언진은 일본인들의 사실적인 생활 모습, 일본의 풍물,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 지형, 형세 등 일본의 지리와 문물 등을 편벽됨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가 있었다. 박지원은 그동안 수차례 왕래해왔던 조선 통신사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일본 정세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언진에 대해 칭찬하였다. 박지원은 “흔히 역관들이 일본의 거간꾼들과 이익을 논하여 재물을 탐하고자 하는데 이언진은 홀로 문장으로 일본에 이름을 드날려 이언진의 시문 솜씨가 햇빛과 달빛으로 씻은 듯 환하게 빛난다”⁴⁵⁾고 평하였다. 박지원은 이언진이 역관으로서 일본의 실상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문장까지 빛내는 그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다.

이언진은 일본 문사들과 近來 일본의 학풍에 대해 논하면서 일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문 풍조에 대해서 인식하였다. 일본에서는 주자학을 비판하며 원시유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古學을 숭상해오다가 반세기 이후에 옛날 경전을 해석하기를 주장하는 荻生徂來의 古文辭學이 융성해졌다. 1763년 계미사행 당시 일본에는 외면적으로 徂來學이 융성했으나 反徂

45) “우상은 일개 역관에 불과한 자로서, 나라 안에 있을 때는 소문이 제 마을 밖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벼슬아치들이 그의 얼굴조차 몰랐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름이 바다 밖 만리의 나라에 드날리고, 몸소 곤어와 고래와 용과 악어의 소굴까지 뒤졌으며, 솜씨는 햇빛과 달빛으로 씻은 듯 환히 빛난다.” 박지원 지음, 신호열·김명호 옮김, 앞의 책, 211면.

“虞裳一譯官 居國中 聲譽不出里閭 衣冠不識面目 一朝名震輝海外萬里之國 身傾 側鯢鯨龍鼉之家 手沐日月 氣薄虹蜺” 朴趾源, 『燕巖集卷之八別集』, <放瑠閣外傳-虞裳傳>, 한국고전번역원DB.

來學의 경향도 두드러지기 시작한 때였다. 조선 문사들은 이견을 보인 조래학의 이단성에만 집중했을 뿐 일본 학계의 본질적인 분위기는 알 수 없었다.⁴⁶⁾ 조선 문사들은 주자학 외에는 어떠한 견해도 수긍하지 않았다. 이언진과 필담을 나눈 일본 문사 劉維翰(1718-?)⁴⁷⁾의 필담집 『東槎餘談』을 보면, 당시 일본인들의 학문 풍조와 일본인을 대하는 조선 문사들의 대응태도를 살필 수 있다. 유유한은 조래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 이언진과 필담을 일찍 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한다. 다음은 유유한의 필담 중 일부이다.

용문 : 제가 객관에 있는 지 여러 날입니다. 학사와 더불어 세 차례나 방에서의 만남을 기록하였지만, 공처럼 재지가 탁월한 분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인연을 빌려주지 않아서 서로 만나 봄이 늦었으니, 한탄할 만합니다. 제가 조금만 일찍 공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어찌 공을 여러 학사와 바꾸겠습니까? 여러 날 헛되이 많은 붓으로 나눈 이야기가 실은 쓸데없는 이야기로 허비한 셈입니다.⁴⁸⁾

유유한은 조선 문사들과 문장과 학술에 대해 열띤 논쟁을 하다가도 왕세정⁴⁹⁾과 이반룡을 거론하면 그들의 낯빛이 달라지고 이단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언진의 경우, 왕세정과 이반룡을 숭상하여 조선 문인들이 배척

46) 구지현, 「이언진과 일본문사 교류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23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37-41면.

47) 유유한(1718-?)의 자는 文翼이고 호는 龍門이다.

48) <筆談>, 『동사여담』 하권 : “龍門曰: 吾攀館有日也, 與學士三記室會, 未見若公才識卓越者也. 天不假良緣, 相見之晚, 可恨可歎, 余早知有公, 豈以公易諸學士, 多日虛多筆話, 實費浪說!” 정민, 「『동사여담』에 실린 이언진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102면.

49) 당시 일본의 문인들은 荻生徂來의 영향으로 왕세정을 추종하는 이들이 많았으므로, 자연 통신사들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가 자주 화제로 올랐다고 한다. 정민, 위의 논문, 97면.

하는 학문에 대해 서로 논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유연한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언진은 유유한과 논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서로 숭상하는 시풍의 차이⁵⁰⁾를 인정하면서도 ‘문명’이나 ‘이단’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서로를 단정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이언진이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둔 열린 자세와 그의 융통성을 볼 수 있는 일면이다. 조선 문사들은 주자학 외에는 모두 이단으로 여겨 자기 아집의 틀에서 판단하였다. 계미사행에서 돌아온 조엄은 ‘저들의 시는 대체로 원숙하게 이루어진 작품이 없어 볼만한 게 없었습니다.’라고 일본 문사의 수준을 한 마디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계미사행단의 전반적인 생각이다.⁵¹⁾ 조선 문사들의 소중화적 우월 의식은 일본의 실상을 현상적으로 파악하기보다 관념적으로 평가하여 아예 배제해 버렸다. 그러나 이언진은 이질적인 학풍의 차이를 논쟁하면서도 자신의 학문적 성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하였다. 제술관 南玉(1722-1770)이나 서기 元重擧(1719-1790)처럼 그는 일본 문사에게 주자학의 정통성에 대해 설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제약이 없었던 것이다.⁵²⁾

이언진은 유유한과 필담을 통해 당시 일본의 학풍을 조선 사신들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일본 학문의 수준도 가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 문사들이 우월 의식에 사로잡힌 조선 문인들에 대한 평가와 일본 문사들의 조선 문학에 대한 인식도 살필 수 있었다. 이언진은 현실 내부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학풍을 인식하였다. 관념적으로 일본을 인식한 조선 문사들보다 일본 현실의 실상을 좀 더 깊이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언진

50) 이언진은 고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문의 정신을 체득해야 한다는 것이고 조래학과는 고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도구로써 이반룡과 왕세정의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지현, 앞의 논문, 57면.

51)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사, 2006, 219면.

52) 구지현, 「『우상잉복』 소재 사행일기에 보이는 이언진의 일본 행적」, 『우상잉복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문화사, 2008, 134면.

의 융통성과 수용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언진은 11개월의 기나긴 사행 동안 통신사행원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국내외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의 일본 인식을 정립시키고 나아가 다른 문사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成大中(1732-1809)과 원중거는 연암일파의 일원으로 성호학파의 영향을 받은 이언진과 사행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였다. 귀국 후 이언진은 일본에서 기록한 그의 사행 한시를 성대중과 박지원 등에게 보여주었다. 실학파는 조선의 한계를 넘어 세계로 인식을 확대시키려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는 자못 이언진 사행 한시에 대해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박지원을 중심으로 박제가, 유득공, 홍대용으로 한 연암학파는 중국을 다녀오면서 조선조 사회의 민생과 채용이 날로 곤궁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청의 선진적인 물질문화를 받아들여 상공업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북학론⁵³⁾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암학파는 일본에는 발길이 닿은 적이 없었고 중국을 오가며 기술문명을 경험함으로써 개방의 대상국은 중국이며, 일본은 아예 배제하였다. 북학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박제가는 일본에 대해 ‘저들은 흉악해서 항상 이웃나라를 엇본다’고 지적하며 일본이란 나라는 침략주의적 성질이 상재해 있다⁵⁴⁾고 전통적 華夷觀을 내비쳤다.

그러나 계미통신사행 이후 연암학파는 일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연암파의 성대중과 원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귀국 후 성대중은 하루에 세 번씩 사람을 보내 이언진에게 끈질긴 시문을 요구하여 이덕무 등 연암파 일원들과 그의 시문을 나누어 보았다. 성대중⁵⁵⁾은 이언진과 연암파 사이에 간접적인 교유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일본에서

53) 김희숙, 「조정 박제가의 정치 경제사상에 관한 고찰 : <북학의>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5면.

54) 임형택, 「계미통신사와 실학가들의 일본관」, 『18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 태학사, 2007, 52-53면.

55) 성대중(1732-1812) 자는 士執 호는 靑城이다.

이언진의 활약상을 체험하고 이언진의 시문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이언진에게 일본시고 전체를 보여 달라고 졸라대어 이언진은 시문 한 축을 억지로 빼앗기다시피 한다.⁵⁶⁾ 그러나 이언진은 남들 눈에 퍼질 것을 생각하면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진다고 하여 성대중의 계속되는 시문요청에도 자신의 시문을 내놓지 않는다는 결의를 보인다.⁵⁷⁾ 성대중은 이언진의 완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시문 요구를 한 것을 보면 계미사행에서 이언진이 활약했던 그의 시문을 연암과 일원들과 나눠보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일본 인식에 이언진의 일본 체험이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덕무는 이언진과 한 번도 상면한 적이 없는데도⁵⁸⁾ 불구하고 그의 저서인 『靑莊館全書』의 <淸脾錄>과 <耳目口心書>에 이언진의 사행 한시에 대한 평가, 詩才 등 그에 관한 글이 다수 실려 있다. 다음은 이덕무의 <해람편>과 <제해신>에 대한 평가 글이다.

언진의 해람편은 참으로 조그마한 종이를 뒤흔들고 솟아오르게 하며 빛나고

56) “士執 이 일찍이 하루에 세 번씩 사람을 보내서 문장을 구하니 언진이 감추고 허락하지 않다가 끝에 가서야 시 세 수를 종이 끝에 써 주었는데 아직도 그 먹물 흔적이 새롭다.”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51, 「耳目口心書」 4, 한국고전번역원DB.

“士執嘗日三送人 索其文章 彥瑱慳秘不許 末乃書三詩于紙尾 墨痕如新也.” 이덕무, 앞의 책.

57) “소생이 시문을 짓는 것은 남에게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전해지기를 구하지 않으며, 스스로 즐기기 위한 것일 따름입니다. 한 축을 억지로 집사에게 빼앗겼으니 그것이 사람들 눈에 퍼질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솟아 마지 않습니다. 그간 지은 여러 시들은 지금 모두 한바탕 불길에 던져버려 한 조각 종이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소생이 집사께 대해서는 은혜에 감사함이 열지 않지만 이것은 곧 평소의 정견이므로, 비록力士 다섯이 오더라도 저의 뜻을 빼앗지 못할 터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하량하소서. 곧 절하고 올립니다” 강순애외, 앞의 책 간찰 3, 150면.

“答上書 小生之爲詩文 不求知於人 不求 傳於世 自娛而已 一軸強被 執事攘去 每思其播人眼目 駢汗不已 諸所爲詩 今盡付 一火 無片紙 小生於 執事 感恩不淺 而此乃平生 定見 雖得五丁 不可奪 伏願 下諒 卽拜手.” 강순애외, 앞의 책, 149면.

58) “우상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48, 「耳目口心書」 1, 한국고전번역원DB.

“不識虞裳之眉目何如”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48, 「耳目口心書」 1, 한국고전번역원DB.

괴이한 것이 많아서 한번 보매 만리를 내달리는 뜻이 있다. 글이 太史의 화식전과 창려의 남산시를 섭렵한데다 황홀하고 영롱한 재주를 가지고 영묘하고도 헤오한 이치를 투시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산해경에서 운을 잇고, 박물지의 글자를 주워 맞췄으며, ‘산호해’니 ‘대염국’이니 하는 말은 王思任의 天目遊喚에서 따온 것이다.⁵⁹⁾

이덕무는 <해람편>과 <제해신>의 글귀는 괴기하며 훌륭한 것이 많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태사의 화식전은 사마천 『사기』에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창려는 당나라 한유의 號이다. 자칭 창려 한유라 하여 어려서부터 읽은 책이 만권을 넘는다고 한다. 이덕무는 이언진이 태사와 창려의 글을 섭렵함이 <해람편>에 나타난다고 평가한다. 이는 이언진이 일본 현실의 부유함을 방대한 어휘로서 표현하였다는 말이다. 이덕무는 <서해여언(西海旅言)>의 서문에 누가 자신의 글을 명나라 왕사임의 <천목유환>에 견주는 것에 대하여 자부를 느끼는데⁶⁰⁾ <해람편>과 <제해신>에서 왕사임의 <천목유환>의 글귀를 볼 수 있다고 하여 이언진의 사행 한시에 대한 이덕무의 평가는 대단히 우호적이다. 이덕무는 “이언진이 오만하고 교만한 것은 그의 지재가 은은하고 기묘하면서도 편벽됨이 없고 현실을 초월하여 허황되지 않으며 제제를 가하는데도 위축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⁶¹⁾라고 말한다. 이덕무는 이언진의 일본 사행시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그의 뛰어난 문재에 대해서 높이 평

59) “彦瑱海覽篇 眞尺紙蕩瀟 光怪熊熊 有一覽萬里之意 涉筆於太史之貨殖 獵墨於昌黎之南山 挾之以惛惚玲瓏之才 透之以靈妙慧悟之理 綴韻之山海經 排字之博物誌 珊瑚海大染局之說 從王思任天目遊喚中來” 이덕무, 『靑莊館全書』 卷51, 「耳目口心書」 4, 한국고전번역원DB.

60) 이덕무는 <서해여언>의 서문에서 “知我者曰：‘文心奇僻，往往如王李重天目游喚。’余頗頷可”라 하였다. 정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청아문화사, 2007, 160면.

61) “吳裳之詩 書卷之氣上升 該合而不濫 幽奇而不僻 超悟而不空 裁制而不短 要之東方罕此人也 藻華溢則本實疏 吳裳之或云傲驕逸俊 理固然也 而夫安得不夭折哉 ”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34, <清脾錄>3, 한국고전번역원DB.

가하고 있다.

이덕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국지라 할 수 있는 『蜻蛉國志』를 저술하여 일본 연구의 최고봉이자 집대성한 사람이다.⁶²⁾ 일본을 가본 적 없는 이덕무가 일본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일본 서적과 통신사행의 수행원을 통한 傳聞이다.⁶³⁾ 이덕무는 성대중과 박지원을 통해 일본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은 이언진의 사행 한시를 접하였고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언진의 사행 한시는 실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 전해졌으며 그들의 일본 인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다.

이언진의 허황되지 않는 현실 인식과 냉정한 관찰력은 그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조선 사회의 실학과 문인들이 이언진의 사행 한시를 통해 계미사행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조선 밖에서 조선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이언진의 사행 한시가 갖는 계미사행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2. 사행 한시의 특징

이언진은 사행 경험을 한시에 담아 문학적 업적으로 삼았다. 조선 사회에 사행 인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대부들이 익숙한 한시라는 형식을 선택하였다. 한시의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한 일종의 장

62)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일본연구와 문헌자료 정리」, 『일본사상』 6호, 2004, 197면.

63) 하우봉, 「이덕무의 일본관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 17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7, 161면.

치로 이언진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언진의 시문집 『松穆館燼餘稿』⁶⁴⁾에 수록된 詩는 47題 301首이고 그 중 사행 한시는 11題 62首로 다음과 같다.

五言古詩：3題 3首

<祭海神>：오언 52구, 바다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례의식 절차

<海覽篇>：오언 96구, 일본 사행의 총평

<贈人>：오언 6구, 삼국 시대 부터 이어져온 조·일관계의 회상

七言古詩：3題 3首

<余八月踰嶺觸目田園皆詩中境也馬上口占>：칠언 17구, 통신사일행이 일본으로 가는 길에 조선의 아늑한 전원 풍경을 묘사

<壹歧島>：칠언 14구, 일본인들 묘사

64) 五言古詩：<祭海神>, <海覽篇>, <贈人> 3題 3首.

七言古詩：<余八月踰嶺觸目田園皆詩中境也馬上口占>, <壹歧島>, <壹陽舟中念惠寔老師言> 3題 3首.

五言律詩：<痔臥壹歧島舟中 風聲水聲雨聲蛙吠聲舉集燈下 人間世牢騷鬱陶至矣 間聞老奴寢語說 園圃中事 情不得不動 而喉不得不癢矣 吐而筆之 錯亂無序 其言萬里行李之所經者 什一 平生志業之所存者十九 一切無模擬心矜伎 心恬波鼓枻以自取適耳 12首>, <斜陽明窓蟬聲滿樹 20首> 2題 32首.

七言律詩：<客中秋夕>, <塞下曲 5首>, <山寺題壁 5首>, <新年> 4題 12首.

五言絕句：<病餘 3首>, <阿母>, <暮過山寺 2首>, <寓言 2首>, <村家>, <端坐>, <自知>, <閑吟>, <無題 8首>, <漢高帝>, <呂后>, <武后> 12題 23首.

七言絕句：<擬古田家四時詞 17首>, <寓舍 2首>, <醫員金主簿>, <陸放翁>, <吾身>, <孔氏>, <弇園>, <各作家 2首>, <燈>, <倚欄>, <睡鄉 2首>, <失題>, <詩畫帖>, <墨竹>, <贈選悉齋古野連尋遂 2首>, <遊仙詞 5首>, <宮怨>, <題墨竹障子>, <窓光> 19題 43首.

六言絕句：<衙齋居室 157首>, <本途中所見 22首>, <失題 5首>, <自題日本詩集 1首> 185首

贊：<畫像自題>, <二楊贊 2首>

銘：<硯滴銘>

尺牘：<寄弟殷美>, <寄弟殷美>

跋：<松穆館燼餘稿[金瀾]>, <題松穆館稿後[張之琬]>

<壹陽舟中念惠寔老師言> : 칠언 22구, 일본인의 모순적인 종교생활 비난

五言律詩 : 2題 32首

<痔臥壹岐島舟中 風聲水聲雨聲蛙吠聲舉集燈下 人間世牢騷鬱陶至矣 間聞老奴寢語說 園圃中事 情不得不動 而喉不得不癢矣 吐而筆之 錯亂無序 其言萬里行李之所經者什一 平生志業之所存者十九 一切無模擬心矜伎 心恬波鼓柵以自取適耳 12수> : 오언율시 12首, 이언진은 사행 길에 병이 들어 병증의 고달픔과 유가적 안빈낙도의 삶, 책에 대한 애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斜陽明窓蟬聲滿樹 20수> : 오언율시 20首, 일본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맛있는 나물을 먹고 싶다는 바람과 병을 이겨내기 위해 오직 부처에 의지하고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독서와 글쓰기로 견디고 있음을 나타냄

七言律詩 : 1題 1首

<客中秋夕> : 칠언율시, 일본에서 오랜 여정의 외로움을 토로

六言絕句 : 2題 23首

<本途中所見 22수> : 육언절구 22首, 사행 길에서 만나본 경쾌한 봄날의 정취를 감탄함.

<自題日本詩集> : 육언절구, 이언진의 문집이 일본에서 간행됨

『松穆館燼餘稿』에 들어있는 이언진의 사행 한시 특징은 그의 작품 속에서 독창적인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 그 형식상·표현상·내용상의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언진의 사행 한시에 나타난 형식상 특징은 독특한 형태에 있다. 『어정시운(御定詩韻)』에 입성운 質·物·月·曷·黠·屑의 6韻은 서로 통압(通押)하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해람편>은 입성 6韻을 통운(通韻)하여

협운으로 일운도저(一韻到底)한 시이다. <제해신> 또한 그러하다.⁶⁵⁾ <痔臥
壹岐島舟中…12수>와 <斜陽明窓蟬聲滿樹 20수>는 오언 율시이며 합쳐서
32수이다. 이 시의 특징은 32수를 일관되게 ‘初·書·魚·蔬’ 운을 사용한
형식을 구사하였다. 이언진은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
고자 한 것이며⁶⁶⁾ 4字 운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언진의 사행 한시 형태는 협운의 사용에 대한 문법적인 분석이나
평가보다는 시에 나타난 그의 독창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시의
형식적 특징은 독창성과 연결한 이언진의 개방적 일본 인식을 보여주는데
수단으로써 의의를 가진다.

이언진의 일본 인식을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형식적 특징과 함께 표현
상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이언진은 사행 한시에서 중국어 구어인 白話를
사용하였다. 한시는 고도로 정제된 형식과 언어를 요구하는 문학 장르로
한시 창작에서 구어의 사용을 금기시 한다.⁶⁷⁾ 그러나 이언진의 백화투 사
용은 육언시에서 특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⁶⁸⁾ 사행 한시의 오언시, 칠
언시에서도 창작되어 그의 독창성을 돋보이게 한다. 사행 한시는 사행이라
는 견문록 형태와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백화의 사용
은 주장이 강한 육언시보다 빈도수가 낮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언진이
사행 한시에서 백화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의 독창성과 일본 사행에서 형식
적이지 않고 생활 속의 생생함을 표현하기 위해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65) 심경호, 「『우상잉복』의 서지문헌학적 고찰과 수록 시문에 나타난 이언진의 내면의식 탐구」, 『우상잉복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문화사, 2008, 56-57면.

허경진, 「『우상잉복』에 실린 <해람편>의 가치와 문집 편찬과정에 대하여」, 『우상잉복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93-94면.

66) 이동순, 「이언진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07면.

67) 신상필, 「吏胥·譯官 계층 소설 관련 양상의 현실적 근거와 그 실제」, 『한국한문학 연구』 38집, 한국한문학회, 2006, 196면. 이동순, 앞의 논문, 60면. 재인용.

68) 이동순, 앞의 논문, 63면.

이언진의 사행 한시에 나타난 또 다른 표현상 특징은 사실적인 묘사이다. 이언진의 예리한 관찰력과 치밀한 묘사는 현장감을 살려 생생하게 전달한다. 사행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 기법이 사실적 기법인 것으로 사신들은 사행 일정에 쫓기면서도 그들의 눈에 비치는 풍물이나, 사건들을 대단히 정밀하게 묘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⁶⁹⁾ 이언진의 사행 한시 또한 거의 대부분이 사실적 묘사로 표현되어 있다.

<제해신>의 일부를 보면 “화부가 갑판에 화로를 설치하니 / 제단에 구름은 붉게 일렁이네. / 어부들은 말린 생선 올리고 / 참게알과 고래 고기포를 올리네 / 요리사는 자라 좀먹은 것 가려내고 / 살찐 새끼 양에 돼지 앞다리 올리네 / 마른 음식과 젖은 음식을 올리고 / 누런 파초에 붉은 여지 섞어 놓았네 / 鼓人이 북을 올리니 / 북소리에 숨었던 악어가 일어나네 / 순거는 갑자기 귀신처럼 울며 / 손톱과 우묵한 눈을 내미네 / 서쪽부터 차례대로 술동이 들고 / 붉은 그릇에 술을 따르네”⁷⁰⁾라고 하여 배 위에서 해신에게 제사 올리는 장면을 눈앞에 펼쳐지듯 묘사하였다. 화부, 어부, 요리사, 鼓人, 서기 등 사람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표현하고 있고 제사 올리는 음식에 마른 음식과 젖은 음식을 나누어 표현하는 이언진의 세밀함이 엿볼 수 있다. 배 안에서 울려대는 음악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위의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제례 의식이 시작되면서 사신들이 차례로 술을 따르는 광경 역시 매우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언진은 사실적 묘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장에다 색깔을 입혀 시각적 대비를 주고 있다.

잠자리 검은 날개 붉은 날개

69) 엄경흠, 「한국사행시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93, 154-155면.

70) “燿夫設庭燎 壇雲紅肅穆 魚人獻蠹蔞 饗實鯨爲腊 庖人屏鰐螯 肥羜豚肩髀 籩人及豆人 雜蕉黃荔赤 鼓人鼓雷鼓 輶輶潛鼉作 筍簴勃若鳴 出其爪深目 西序司尊彝 綈盞漢潦酌”『松穆館燼餘稿』492면.

순무 파란 꽃 노란 꽃

흐르는 물은 초가집을 등글게 감싸고

첫 서리는 들판 들판 울타리에 맺혔네⁷¹⁾

<日本途中所見> 6

뜰에 물오리 비단 같은 깃털

산에 까마귀 금빛 꼬리

저녁놀은 검푸른 구름을 일으키고

꽃은 물들어 연지수 되었네⁷²⁾

<日本途中所見> 8

잠자리의 날개를 ‘검다’ ‘붉다’와 순무의 ‘파란 꽃’과 ‘노란 꽃’을 비교하여 뚜렷하게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 검은 것은 더욱 검게 하고 붉은 것은 더욱 붉게 하여 반대 색깔을 대비시켜 서로를 강조한다. 이러한 색깔 대비는 사실적 묘사에서 그림을 보듯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잠자리’는 하늘에 있고 ‘순무’는 땅에 있어서 공간적 개념을 대비시켜 여러 색깔들이 넓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듯한 효과를 드러낸다. ‘초가집’과 ‘울타리’도 같은 공간이 아닌 일정 거리가 두고 묘사되어 초가집을 도는 ‘물’과 울타리의 ‘첫 서리’는 공간 개념에서 발생하는 움직임들이 동적으로 표현되었다. <日本途中所見> 8 에는 ‘뜰’과 ‘산’이 대구를 이루고 ‘물오리’와 ‘까마귀’는 하늘과 강의 공간 대비를 나타낸다. ‘비단 깃털’과 ‘금빛 꼬리’는 생물에 화려한 색깔을 입히고 ‘노을이 든 검푸른 구름’과 ‘꽃으로 물든 연지수’는 시각, 공간을 합쳐 공감각적인 대비를 주어서 한편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들도록 한다. 시각적 대비 효과는 <해람편>에서 그 절정을 보여준다. “산호바다로 변할 때는 / 도깨비불이 타는 듯 / 검푸른 바다 되니 / 구름노을 찬란하네 / 은빛 바다로 변하니 / 별무더기 흩어진 듯 / 온 둘레를 물들이니 / 천 필

71) “蜻蜓黑翅紅翅 蔓菁碧花黃花 流水彎環茅茨 新霜點綴籬笆” 『松穆館燼餘稿』 510면.

72) “野鳧毛如繡段 山鵲尾有金翠 嵐吐起紺碧雲 花染成臙脂水” 『松穆館燼餘稿』 510면.

비단 펼쳐진 듯 / 큰 용광로 될 때는 / 오색 빛이 솟아나네”⁷³⁾ 이러한 이언진의 사행 한시에 나타난 사실적 묘사 방법은 사행에서 겪는 이국의 자연과 풍물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상의 특징이다.

이언진의 사행 한시에는 사실적 기록과 함께 개인적 감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객관적 사실 기록에다 자신의 개인 감상을 서술하여 임무 수행에 따른 외교상의 효용성을 갖는 것이 사행시의 일반적 양식이다.⁷⁴⁾ 이언진의 사행 한시는 자연, 풍물 등의 사실 기록에다 자신의 감상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이국의 문물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사행시의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은 이언진이 일본으로 가는 수로 여정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斜陽明窓蟬聲滿樹>이다. 일본에 가는 험난한 여정의 기록과 그에 따른 고달픔을 토로하고 있다.

아픈 것 진정되니 도리어 그럽고
놀란 마음은 열 배나 되네
희생을 바쳐 바다귀신 몰아내니
무지개가 나타나서 천서를 보호하네
지세는 온통 물에 둘러 싸였고
사람들은 서로 물고기를 먹네
그물을 가지고도 내 이미 박복하나
채마밭에 어찌 나물이 없을까⁷⁵⁾

<斜陽明窓蟬聲滿樹> 20

통신사들은 육로를 통해 가는 중국 연행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일

73) “忽變珊瑚海 煜曜陰火烈 忽變紺碧海 雲霞象色設 忽變水銀海 星宿萬顆撒 忽變大染局 綾羅爛千疋 忽變大鎔鑄 五金光迸發.” 『松穆館燼餘稿』 492면.

74) 엄경흠, 앞의 논문, 29면.

75) “痛定還思痛 警心十倍初 牲沈驅海若 虹現護天書 地勢渾包水 人生互噉魚 持梁吾已薄 場圃豈無蔬” 『松穆館燼餘稿』 495면.

본으로 가는 사행 길은 무사히 다녀오는 것에 의의를 둘 만큼 바닷길을 두려워한다. 이 시는 이언진이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험난한 파도와 바람이 부는 거친 날씨 때문에 병고에 시달리다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서야 겨우 진정되었다고 한다. 통신사일행은 오랜 바닷길에서 물고기를 주로 먹는데 일본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언진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나물을 먹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내었다. 이언진이 겪는 일본 사행길의 고단함은 무릇 이언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통신사일행이 모두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험난하게 가는 일본 여정의 사실 기록과 이언진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日本途中所見>이다. 통신사 일행은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의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자 이언진은 일본인들의 생활을 묘사하였다.

꽃향기보다 진한 용연향
돌무더기처럼 쌓여 있는 사리
정원이 이들의 극락이요
주인이 모두 부처라네⁷⁶⁾

<日本途中所見> 1

일본 사람들의 집에서 풍기는 진기한 용연향 냄새와 사리가 쌓여 있는 정원은 조선에서 볼 수 없는 이국의 풍물이다. 이언진은 일본의 새로운 문화를 보면서 자신이 숭상하는 불교적인 내면 의식을 내보이고 있다. 부처에 대한 이언진의 믿음은 남다르다. 이언진은 오래된 병으로 부처에 의지하면서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병이 많아 부처를 신봉하고’⁷⁷⁾ ‘묵은 병에 비로소 선을 깨닫네’⁷⁸⁾라며 깊은 병으로 사행에서 겪는 어려움을 수

76) “花薰百斛龍涎 石列千堆鴉骨 園卽是衆香國 主卽是多寶佛” 『松穆館燼餘稿』 509면.

77) “病多仍奉佛” <斜陽明窓蟬聲滿樹>3, 『松穆館燼餘稿』 494면.

78) “緣病悟禪初” <痔臥壹歧島舟中 風聲水聲雨聲蛙吠聲集燈下 人間世牢騷鬱陶至矣 間聞

행으로서 이겨내고자 한다.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언진의 불교 사상은 조선 시대 유자들과 달리 독실한 불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주막에선 술 향기에 하얀 꽃이 지고
봄강에 고기가 살찌고 비파소리 높아라
꽃그늘에는 여기저기 술자리 벌렸고
나무 밑둥에는 고깃배 한가로이 매였네⁷⁹⁾

<日本途中所見> 13

이언진이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의 생활은 풍요롭다. 가난함에 찌든 모습보다 여유가 있으면서 주막에서 술도 한잔 기울이며 봄꽃을 만끽하고 술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일본인들의 일상은 여유롭기만 하다. 이언진은 풍족하게 삶의 여유를 지닌 일본인들의 삶을 한가로이 매어 있는 고깃배로 나타내었다. 일본 사람들의 여유로운 생활 모습을 그리며 이언진은 부러운 눈길로 시에 나타내었다.

다음은 이언진이 일본에서 풍토병을 얻어 병고가 악화된 데에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언진은 사행 동안에 아픈 몸을 약을 써도 안되고 스스로도 어찌지 못하여 오직 책에만 매달려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약 먹으려 부축하여 일어나니
어찌 이다지도 병이 들었는가⁸⁰⁾

老奴寢語說 園圃中事 情不得不動 而喉不得不癢矣 吐而筆之 錯亂無序 其言萬里行李之所經者什一 平生志業之所存者十九 一切無摸擬心矜伎 心恬波鼓棹以自取適耳¹¹⁾, 『松穆館燼餘稿』 494면.

79) “野店酒香白墮 春江魚肥琴高 花陰雜鋪伎席 樹根閒繫漁舠” <日本途中所見> 13, 『松穆館燼餘稿』 510면.

80) “藥餌扶人起 何如未病初” <痔臥壹歧島舟中 風聲水聲雨聲蛙吠聲集燈下 人間世牢騷鬱陶至矣 問聞老奴寢語說 園圃中事 情不得不動 而喉不得不癢矣 吐而筆之 錯亂無序 其言萬

걱정 근심은 그물이 펼쳐있는 것 같고
 심상해 먹는 것마저 싫어지네
 철없는 노비는 약을 청하고
 변통하기 어려워 나는 책만 보네
 개구리떼 울음소리 개짓는 소리요
 오가는 사람 행렬 어지러운 고기떼라
 세상이 모두 맛있는 음식을 다투지만
 다들 맛있는 나물만도 못하네⁸¹⁾

<斜陽明窓蟬聲滿樹> 7

'오가는 사람 행렬 어지러운 고기떼라'에서 이언진은 일본 도시에 많은 인구가 있음을 서술하고 병고 중에 무엇보다 채소를 먹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낸다. 일본에서는 물고기를 주로 먹고 즐기는데 이언진은 그것이 입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 '魚'와 '蔬'를 대비시켜 <斜陽明窓蟬聲滿樹> 20수와 <痔臥壹歧島舟中…> 12수에 두 글자를 모두 활용한 것을 보면 아무리 좋은 물고기라고 해도 이언진은 나물을 바란다는 마음을 간절하게 나타내었다. 또한 시에 등장하는 '채소'는 이언진이 유가적 안빈낙도의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시적 장치⁸²⁾이기도 하다. 그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부처에 의지하고 책에 몰두하듯이 초라한 그의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유가적 염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언진의 사행 한시에는 일본으로 가는 수로 여정의 험난한 선상 생활에서부터 일본에 당도하여 일본인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사신들이 먹고 생활 하는 고단함과 괴로움까지 감상적으로 서술하였

里行李之所經者什一 平生志業之所存者十九 一切無模擬心矜伎 心恬波鼓櫓以自取適耳>
 20, 『松穆館燼餘稿』 494면.

81) “憂蟲如羅祐 中腹獸蝕初 漫從奴請藥 難變我看書 蛙吠群欺犬 人行互難魚 世皆爭釘飯 都不味嘉蔬” 『松穆館燼餘稿』 495면.

82) 이동순, 앞의 논문, 93면.

다. 이언진은 단순한 사실 기록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감상적 측면을 추가하여 기록에서 알 수 없는 고단함의 정도와 음식 문화의 차이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산문의 사실적 기록에서는 알 수 없는 정도의 차이를 개인적 감상을 넣어 미세한 감정 부분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언진의 사행 한시가 갖는 내용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언진의 사행 한시에서 나타나는 형식상·표현상·내용상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징은 이언진의 일본 인식을 잘 대변해주기 위한 장치이며 그의 사고 체계를 알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작품이 <壹岐島> <日陽舟中念惠寔老師言> <海覽篇>이다. III장에서는 세 작품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일본의 문화·종교·자연·문물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이언진의 일본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壹岐島><壹陽舟中念惠實老師言><海覽篇>의 일본 인식

이언진은 한학 역관으로서 계미사행에 참여하였다. 계미사행의 역관은 모두 12명인데 押物通使의 직무를 맡은 이언진과 上通史의 오대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왜학 역관이다. 타 외국어 역관 파견은 조정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정보탐지·문화교류·외교교섭의 목적이 있다. 통신사행시 일본인 중 漢音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고 정보 탐지나 외교교섭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던 것이다.⁸³⁾ 이언진은 한학 역관으로서 일본 문사들과 필담을 나누며 일본의 문화·종교·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관의 안목으로 일본을 평가하였다. 이언진의 사행시 중에서 특히 <壹岐島> <壹陽舟中念惠實老師言> <海覽篇>은 일본에 대한 문화와 풍속·지리·의복·음식·생활양상·말·글씨·시장풍경·물산 등 일본인의 일상모습을 보여주며 이언진의 일본 인식이 다양하면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세 작품에서 일본의 문화적·종교적·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언진의 구체적인 일본 인식을 살피고자 한다.

1. 문화적 우월 인식 : <壹岐島>

<壹岐島>는 이언진이 사행에서 일본인을 만나고 통신사 행렬을 영접하

83) 沈致廷, 「조선후기 통신사 원역의 차정과 변화」,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2004, 12면. 백옥경, 「역관 오대령의 일본인식」, 『조선시대사학보』 38집, 141면. 재인용.

는 일본 관리와 관청의 정원 문화를 접하면서 기록한 작품이다.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만큼 <일기도>에 묘사된 일본인과 그들의 생활 문화를 바라보는 이언진의 시각은 우월 인식으로 표출된다. 일본에 대한 선입관을 반영한 결과이다. <일기도>는 일명 勝本海라고 하며 壹岐島에서 기록하였다. 壹岐島는 일본 본토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섬으로 통신사일행이 대마도를 출발하여 壹岐島에 도착하자 풍랑 때문에 치목이 부러져 20일 가까이 섬에 정박한다. 그래서 1763년 11월 13일 壹岐島에 도착하여 12월 3일 남도 항구에 가기 전까지의 기록이다.

<일기도>는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단락은 이언진이 대면한 일본인들의 모습이고 ②단락은 일본 관리들이 통신사를 영접하는 의식을 그리고 있다. ③단락은 영접 의례식을 끝내고 이언진이 관청을 나오다 일본의 정원에 대해 서술하였다. 다음은 단락별 주요 내용이다.

- ① 1구 - 6구 : 일본의 첫 도착지, 일기도(=승본해)에서 일본인 묘사
- ② 7구 - 12구 : 일본 관리들의 조선통신사 영접 의식 과정
- ③ 13구 - 14구 : 일본 관청의 정원 문화

이언진은 일기도에 도착했을 때 통신사 행렬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일본인들과 예우를 갖추어 영접 의식을 치루는 일본 관리들을 보면서 문화적 우월감으로 그들을 묘사하고 있다. 일본의 관리는 대체로 武士를 지칭한다.⁸⁴⁾ 그래서 조선 관리들의 소박한 禮服과는 다르게 일본 관리들은 화려한 옷감에다 다양한 문양의 수가 놓아진 복식이었다. 이언진은 조선의 의복과 비교하여 일본의 요란스런 복식 문화를 통해 일본의 인상을 생생하게 관찰하

84) 김윤향, 「18세기 신유한의 일본인식에 대한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47면.

였다.

① 맨발의 오랑캐 노비 비틀거리는 도깨비 모양

푸른 색 옷 등에 별과 달을 그렸네
색동옷 입은 계집아이 문을 달려나올 때
머리를 빗다 만 듯 머리카락 뭉쳤구나
젖 달라 우는 아이 어미가 젖 주는데
손으로 등을 때리니 우는 소리 요란하네 85)

①단락은 통신사행렬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일본인들의 남녀노소 모습이다. 대규모로 길게 늘어진 조선통신사의 행렬에 삼삼오오 모여서 신기한 듯 쳐다보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조선 문사로 하여금 우월감을 가지게 한다. 이언진은 일본인의 묘사에서 남녀들의 옷차림과 걸음걸이, 행동거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 맨발로 비틀거리는 일본 남자들, 거울도 보지 않고 급히 뛰쳐나온 일본 여자들, 아이가 우는데도 개의치 않고 데리고 나온 아이 엄마 등 이러한 장면을 포착하여 시를 쓴 이언진의 시각은 세밀한 관찰력을 볼 수 있다. 반면 서기 원중거는 “왜인 남녀노소들이 모여들어 구경을 하였다.”⁸⁶⁾라고 서술하였다. 사신들은 일본에 대해 야만국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왜인들의 사소한 모습은 의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언진은 별·달·거북이·물고기가 그려진 일본인들의 사소한 옷차림⁸⁷⁾에서 젖 주는 아이 엄마 모습 등에 이르는 사실적 묘사로 통신

85) “蠻奴赤足貌魍魎 鴨色袍背繪星月 花衫蠻女走出門 頭梳未竟鬢其髮 小兒號嗷乳母乳 母手拍背鳴咽咽” 『松穆館燼餘稿』 493면.

86) 원중거, 김경숙 옮김,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사, 2006, 136면.

87) “옷무늬에는 거북이와 물고기가 섞였네 ” 정훈, 앞의 책, 85면.

“衣繪雜龜魚” <痔臥壹岐島舟中 風聲水聲雨聲蛙吠聲舉集燈下 人間世牢騷鬱陶至矣 間聞老奴癡語說 園圃中事 情不得不動 而喉不得不癢矣 吐而筆之 錯亂無序 其言萬里行李之所經者 什一 平生志業之所存者十九 一切無模擬心矜伎 心恬波鼓樯以自取適耳>4, 『松穆館燼餘

사 행렬의 장황함과 이를 보기 위해 서두르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이언진은 이러한 광경에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 시각과 청각의 효과를 이용하였다. ‘붉은 발’, ‘푸른 색 옷’, ‘색동옷’, ‘별과 달’에서 붉은 색, 푸른 색, 별빛, 달빛 등 시각적으로 화려한 색깔의 묘사와 ‘젓 달라 우는 아이’ ‘유모가 등 때리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등 청각적으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한데 뒤섞여 사람들의 현란한 옷차림과 번잡한 소리로 혼잡한 상황을 여실히 그려내고 있다. 축제와도 같은 통신사 행렬의 장대함을 일본인들의 옷차림과 그들의 행동 묘사로써 이러한 장면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세밀한 관찰력으로 日人을 인식한 이언진은 도깨비 형상의 오랑캐 노비로 비춰진 일본에 대해 문화적 우월 의식을 가지게 된다.

② 잠시 뒤 북소리 나고 사신들 들이치니
둘러싼 못사람들 생불 보듯 하네,
오랑캐 벼슬아치 공손히 절하며 보배 바치니
산호와 큰 구슬을 소반에 받쳐 올리네.
병어리인 양 주인과 손님이 나뉘어
눈짓으로 말하고 붓으로 말을 하네⁸⁸⁾

②단락은 통신사 행렬이 관부에 들어가서 일본 관리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영접식을 치루는 장면이다. 이언진은 통신사 접대를 받는 의례식에서 의식의 절차와 양국 문사간의 拜禮와 같은 공식 行禮에 대한 서술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일본인의 표정, 토산물, 문사 간의 대화하는 장면 등을

稿』493면.

88) “須臾播鼓官人來 萬目圍繞如活佛 蠻官膜拜獻厥琛 珊瑚大貝擎盤出 眞如啞者設賓主 眉睫能言筆有舌”『松穆館燼餘稿』493면.

서술하고 있다. 日人들의 모습을 ‘생불 보듯’ ‘눈짓으로’ ‘병어리인 양’에서 처럼 그들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사실감을 나타내고 청각을 자극하는 ‘북소리’를 덧붙여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고 있다. 拜禮의 절차에 대해서는 일본의 귀한 토산물인 ‘산호’와 ‘큰 구슬’을 올리며 ‘공손히 절한다’를 언급할 뿐이다.

이와 달리 조엄은 “주객이 탁자 앞에 서서 각각 두 번 읍례를 행하고 좌정하니, 원역들도 모두 공석을 바라보고 두 번 절한다. 공석을 바라보고 두 번 절하는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들은 도주에게 절한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신 앞에 절한다 하니 다 그것이 반드시 그런지 모르겠다”⁸⁹⁾하여 拜禮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조엄은 국가간의 위신을 지키는 것이 行禮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예의가 바른 우리나라는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조엄의 근본 생각이다. 양쪽 국가 간에 이뤄진 의례식에서 조엄은 의식의 절차가 중심이 되고 이언진은 日人들의 행동, 음식, 사물 등 부수적인 현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이며 그에 따라 일본을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조엄의 일본 인식은 ‘사명을 받들고 와서 조금이라도 저버릴 수 없는 것은 오직 禮義와 體例에 있을 뿐이다. 만일 혹시라도 그 중함을 버리고 경함을 취한다면 사명을 받들고 온 체통이 어디에 있겠는가’⁹⁰⁾라 하여 통신사의 목적이 ‘예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엄의 강직한 소중화 의식을 내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이언진은 처음부터 일본을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현상에서 보여지는 일본인들의 행동 양상에 따라 인식하고 있다. 극진히 환대받는 사신단의 모습과 조선 사신들을 둘러싸고 왜인들이 신기

89) 조엄, 『국역 해행총재Ⅶ : 해사일기』, 민족문화추진회, 1974, 74면.

90) 조엄, 『해사일기』, 86면.

한 듯 우러러 보고 있는 모습에서 그의 화이론적 우월감을 표출하였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조선의 모습이 이언진을 통해 그대로 나타난다. 일본 관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절을 올리고 기이한 산호와 그 지역의 값진 토산물을 바치는 모습은 조선 사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왜인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영접 의식을 치루는 日人들의 묘사는 이언진이 자신을 높이고 있는 우월의식 속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文化施惠國으로서 일본에 대한 조선의 소중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조엄의 문화적 우월 의식은 이언진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언진은 관념적인 선입관으로 일본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관찰력과 현재의 현상에서 이뤄지는 모습들을 통해 장면 하나 하나를 포착하여 일본을 인식하고 있다. 이언진의 문화적 우월 인식은 일본을 교화의 대상으로 확립되어 있는 조엄보다 유연하다. 일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이언진은 사신들에 비해 열린 자세로 선입관으로 인해 전도되지 않은 시각으로 일본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왜놈의 관부에도 정원 풍취 풍부하여

종려나무와 푸른 굴이 뜨락에 가득 찼네.⁹¹⁾

③ 단락은 이언진이 일본 관부의 정원에 종려나무와 굴 토산품이 가득 찬 모습을 발견한다. 이언진은 영접식을 끝내고 나오는데 관부의 정원에서 일본의 한 모습을 포착한다. 가득 쌓여 있는 정원에서 이국적인 면과 함께 풍성함을 본 것이다. 원중거의 1763년 11월 17일 『승사록』 기록에도 “왜놈의 정원에 반드시 종려나무가 있는 것을 보니, 좋아하는 나무인가보다”⁹²⁾라며 일본인의 기호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단순한 관심에 그칠 뿐

91) “蠻府亦耀林園趣 枳欄青橘配庭實” 『松穆館燼餘稿』 493면.

92) 원중거,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136면.

이언진은 마당 뜰에 심어져 있는 종려나무와 가득 쌓인 꿀을 통해 일본인들의 풍요로움을 감지한다. <斜陽明窓蟬聲滿樹>에서 “나그네 밥상에는 들에 정취가 살아나 / 노란 꿀과 푸른 나뭇잎이 어울렸네”⁹³⁾와 같이 관청 정원에서 보았던 풍성한 꿀과 푸른 나뭇잎은 관청에만 있는 특별한 풍성함이 아니라 일본 평민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손님 식단에도 올려지는 흔한 음식이었다. 이언진은 일본에서 꿀은 그들이 즐겨 먹는 토산물이며 일본의 여유로운 식생활을 인식하였다. 일본 관리들의 관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즐겨 먹는 것으로 일본인들의 넉넉한 생활 모습을 본 것이다.

큰나무 서 있는 산신묘에
시끄럽게 재잘거리는 놀이판 벌렸네
술취한 아이는 노루 뛰듯 춤추고
꽃그늘에 술단지는 사람과 같네⁹⁴⁾

이언진은 ‘산신묘’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日人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꽃그늘에 술단지’로 따뜻한 봄날에 아이들은 재잘거리고 동네 어른들은 술잔을 주고 받으며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 크기의 커다란 술단지는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술잔을 기울고 아이들은 춤추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풍경을 바라본 이언진은 日人들의 요란스런 행동을 질타하면서도 그들의 넉넉한 의식주 생활을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조선은 당시 영조 말기에 접어들면서 농민의 빈곤이 확대되었고, 기근이

93) 정훈 역주, 앞의 책, 92면.

“旅盤生野趣 黃橘間青蔬” <斜陽明窓蟬聲滿樹> 9, 『松穆館燼餘稿』 495면.

94) 정훈 역주, 앞의 책, 166면.

“大樹坡山神廟 鬧雜雜戲具陳 蠻童醉舞獐跳 花陰酒瓮如人” <日本途中所見> 15, 『松穆館燼餘稿』 510면.

계속되면서 통신사가 출발한 1763년 3월에는 호남에서만 48만 여명의 기민이 발생하여 사망자가 450명에 이르는 상황이었다.⁹⁵⁾ 조선 사람들은 빈곤이 확대 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풍성한 먹거리를 즐기는 넉넉한 현실이었다. 이언진은 관청의 정원에 가득 쌓인 종려나무와 굴 그리고 민생들의 식생활에서 일본의 풍요로움을 인지하였다. 이언진의 이러한 관점은 일본 관리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격식과 절차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일본의 정세이며 실제 민생들의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여유로움이 내재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정보들이다.

정사 조엄은 조선의 국위 선양을 위해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들이 일본을 인식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이언진에게는 오히려 일본의 문화에 대한 현상들이 더 집중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그들의 옷차림과 정원, 식생활, 삶의 패턴 등 일상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이들을 통해 일본을 인식하는 데 다양한 시각을 지녔음을 볼 수 있다. 이언진은 일본인을 ‘蠻奴’ ‘蠻女’ ‘蠻官’ ‘蠻府’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지만 이것은 단순한 관용구일 뿐이다. 오히려 적대감보다는 이국의 새로움에 대한 문화적 호기심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소중화 의식에서 夷狄國이라고 치부해버린 조선 사신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언진은 일기도에서 머무는 동안 일본인의 겉모습을 오랑캐 형상으로 묘사하고 우월 의식으로 바라보았지만 폐쇄적인 조선 사신들의 우월감과 차이를 있었다. <일기도>에 나타난 이언진의 일본 인식은 일본의 문화적 다양한 면모를 볼 줄 아는 다각적인 시야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95) 『英祖實錄』 39년 3월 을유, 손승철, 「조선시대 『海東諸國紀』와 『和國志』를 통해 본 일본의 표상」, 『동아시아 문화연구』 44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16면. 재인용.

2. 종교적 華夷 인식 : <壹陽舟中念惠賓老師言>

<壹陽舟中念惠賓老師言>은 이언진이 서양 선교사들의 예수회 선교와 불교, 신도 등 일본의 종교 현실에 대해 스승 이용휴에게 전하기 위해 지어진 작품이다. 이언진은 성리학적 테두리에서 인식하는 조선 문사들과 달리 유교·불교·도교를 아우르는 三教回通思想을 추구하며 종교의 범위에서 개방적 사고를 지닌 문인이었다.⁹⁶⁾ 그러나 이언진이 목도한 일본의 종교는 부처를 숭상하면서도 신을 모시는 독특한 생활과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유·불교의 보편적 진리를 저버리는 현실을 본 것이다. 이 작품에서 이언진은 스승의 가르침으로 일본인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華夷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일양주중념혜환노사언>은 지어진 시기가 사행의 끝 무렵으로 이언진이 일본의 전역을 돌아본 후 스승에게 고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정세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본다. 대개 보통 외국에 사신 일행으로 갔다 온 書狀官이나 역관들은 반드시 외국에서의 聞見事目を 제출해야 하는데 聞見事目에는 상대국의 정세, 풍습, 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했다.⁹⁷⁾

<일양주중념혜환노사언>의 지어진 시기를 살펴보면, 이언진이 치질 병이 들어 일기도 배 안에서 壹岐島에 머물렀던 1764년 5월 28일부터 6월 12일 사이로 추정한다. 먼저 ① '壹陽舟中'이라는 것은 壹岐島 배 안에서 기록한 것이고 ② 이언진이 치질 병이 들었다는 사실은 박지원의 <우상전>

96) “유가의 옷에 스님의 형상 / 그 사람 성은 상청 이씨 / 한 가지로 이름 할 수 없음은 / 유불도를 아우르는 대제자라.” 정훈 역주 앞의 책, 131면.

“儒其衣僧其相 其姓則上清李 要不可一端名 三教中大弟子” <衙齋居室> 21, 『松穆館燼餘稿』 502면.

97) 허경진·박은애, 「한학역관 오대령과 이언진의 사행기록」, 『조선통신사연구』 9호, 조선통신사학회, 2009, 9면.

에 기록된 <일양주중념혜환노사언>에서 “배 안에서 치질 병이 생겨 누워서 매남 스승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시를 지었다.”⁹⁸⁾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일양주중념혜환노사언>은 일본으로 가는 壹岐島에서 기록된 것인지, 관백 접견 후 조선으로 가는 여정의 壹岐島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통신사 일행이 壹岐島에 머문 기간은 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전자는 1763년 11월 13일 ~ 12월 2일이고, 후자는 1764년 5월 28일 ~ 6월 12일이다. ③ <일양주중념혜환노사언>은 후자인 조선으로 가는 기간에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 『松穆館燼餘稿』에서 사행 한시 <痔臥壹岐島舟中…12수>가 갑신년 6월 28일⁹⁹⁾에 쓰여져서 이언진이 치질 병에 걸린 것은 1764년 조선으로 귀환하는 길에 발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양주중념혜환노사언>은 조선으로 귀환하는 일기도 배 안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언진이 에도까지 돌아본 후 부산에 도착하기 10여일 남은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이언진은 일본에서 모든 여정을 끝내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의 현재를 회고하며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일본인들의 종교와 사상이 변하고 그에 따라 생활 양상도 변하는 일본의 현실을 인식하였다.

이언진은 일본의 종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그 실상에 대해 <일양주중념혜환노사언>에 나타내었다. 작품은 3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단락은 서양 예수회 선교사들이 인도에 진출하여 불교를 섬기는 사람들

98) 박지원, 신호열·김명호 옮김, 앞의 책, 212면.

“病痔舟中 臥念梅南老師言 乃作詩曰” 朴趾源, 『燕巖集卷之八別集』, <放瑯閣外傳-虞裳傳>, 한국고전번역원DB.

99) “일지도 가는 뱃길에 치질로 누웠는데, 바람소리, 물소리, 빗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등 온갖 소리가 들려왔다. 등불 아래 인간 세상에 대한 답답하고 울적한 심회가 일었다. … (중략)…갑신년 6월 28일 답털 뱃으로 창원 객관에서 쓰다 ” 정훈 역주, 앞의 책, 83면.

“痔臥壹岐島舟中 風聲水聲雨聲蛙吠聲舉集燈下 人間世牢騷鬱陶至矣 間聞老奴寢 語說 園圃中 事 情不得不動 而喉不得不癢矣 吐而筆之 錯亂無序 其言萬里行李之所經者 什一 平生志業 之所存者十九 一切無模擬心矜伎 心恬波鼓柁以自取適耳” 12, 甲申六月二十八日試鷄毛筆書 子昌原客舍, 『松穆館燼餘稿』 494면.

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을 말한다. ②단락은 선교사들이 일본에도 선교를 목적으로 日人들에게 분별없는 행동을 부추기고 일본인 또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③단락은 삶의 이치가 유교와 불교의 보편적 진리에서 비롯되는데 일본인들은 그 진리를 거스르며 지각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언진은 스승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교화하고자 한다.

① 1구 - 8구 : 서양 예수회 선교사들의 인도 진출

② 9구 - 16구 : 불교·신도·예수회 등 많은 신을 섬기는 일본 종교의 현실

③ 17구 - 22구 : 유가의 진리로 교화하고자 하는 이언진의 華夷 인식

다음은 ①단락이다. 서양 예수회 선교사들이 인도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고 선교하는 서양 무리를 묘사하였다.

① 공자의 도와 석가모니의 교는
경세와 출세로서 일월처럼 빛나네
서양사람 일찍이 인도에 갔었으나
예나 지금이나 부처라곤 없었다네
선비들 중에도 장사치 끼어 있어
붓을 놀려 신기한 이야기 지어내네
털이 나고 뿔이 돋쳐 지옥에 떨어져
평생에 남 속인 벌 받게 되리라 100)

‘공자의 도’는 ‘경세’이며 ‘석가모니의 교’는 ‘출세’라 하여 ‘해’와 ‘달’에 비

100) “宣尼之道牟尼教 經世出世日而月 西士常至五印度 過去現在無箇佛 儒家有此稗販徒 簸弄筆舌神怪說 披毛戴角墮地獄 當受生前誣人律” 『松穆館燼餘稿』 493면.

유하였다. 이언진은 유교의 진리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인식하였다. 성리학을 추구하는 조선 사신들은 유교와 불교를 동일선에 두는 이언진을 이단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언진은 학문과 종교를 분리시키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개방된 의식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인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일본의 종교에 대해 이언진은 夷狄視하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종교 전파를 위해 일본인을 선교하는 서양 선교사들을 보았다. 일찍이 아시아 세력 확장에 뛰어든 東印度會社의 인도 진출에 대한 사실을 이언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다른 문인들의 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부분으로 이언진의 서양인들에 대한 인지도가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¹⁰¹⁾ 이언진은 선교사들이 먼저 인도에 가서 선교를 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며 털이 나고 뿔이 돋쳐 지옥에 떨어진다’는 괴이한 학설을 퍼뜨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서양인들을 맹렬히 비난한다. 이러한 서양 세력이 일본에도 퍼져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언진은 일본에 이미 퍼져 있는 가톨릭 세력과 일본 고유의 전통적 신도, 사후를 위한 불교, 지배층의 엄격한 질서 유지를 위한 유교의 이점들을 모두 추구하는 종교의 다양성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다. 이언진은 필시 오랑캐라고 여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에는 1549년 처음으로 예수회 선교사 사비에르에 의해 가톨릭이 전파되기 시작하여 1590년대 신도수는 당시 일본 총인구의 1.3%인 30여만 명이었다. 점차로 확장되어 가는 가톨릭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에도막부는 금교령을 내려 가톨릭을 탄압했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많은 신도들이 있었다. 1868년에는 나가사키에 2만 명의 교인이 있었던 것으로 통신사가 다녀간 18세기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 가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¹⁰²⁾

101) 강동엽, 『열하일기 연구』, 일지사, 1988. 강동엽, 「〈우상전〉에 투영된 이언진과 그의 세계인식」, 『건국어문학』 19집, 건국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1995, 74면, 재인용.

102) 김요섭, 「일본인의 의식 및 종교 이해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 석사학위논문, 2005

또한 일본 고유의 자연 종교이며 조상을 모시는 신도와 죽은 후에는 불교상의 이름을 붙이는 불교가 변성해왔다.¹⁰³⁾ 그리고 일본 지배층인 무사들은 유교의 윤리로 사농공상의 신분이 확립되어 사회 규범을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유교를 인정하였다. 그래서 18세기 일본의 종교는 신도·불교·유교·가톨릭교를 단순히 하나의 경향으로 묶어 버릴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으며¹⁰⁴⁾ 이러한 종교성은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반영되어 여러 가지 모습들로 각각 나타났다. 이언진은 사행에서 일본인들이 부처를 섬기면서도 조상신을 모시는 독특한 종교의 양상과 서양 선교사들이 가톨릭을 전파하며 이를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경험하였다.

② 활활 타는 불꽃이 진단의 동쪽까지 미쳐와서
사방에 절들이 늘어섰네
어리석은 섬 백성들 화복을 두려워하여
향 피우고 쌀 바침에 거르는 날이 없네
부처를 섬기되 부처가 싫어하는 짓을 하고
물고기 자라 굶고 자르며 함부로 죽이네
비유컨대 남의 자식 죽여 놓고
들어가 그 부모 봉양하면 그 누가 좋아하리¹⁰⁵⁾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일본까지 미쳐 와서”는 이미 인도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종교 전파를 했던 선교사들이 일본에도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음을 이언진은 간파하였다. 일본에서 죽음에 관한 의례는 불교가 독점하고 현재

년. 5-6면.

103) 김요섭, 위의 논문, 25면.

104) 스에키 후미이코 지음, 백승연 옮김, 『일본 종교사』, 논형, 2009, 148-153면.

105) “毒焰亦及震朝東 精藍大刹都鄙列 睚眦島衆怵禍福 炷香施米無時缺 好佛反好佛所惡 燒剔魚鼈恣屠殺 譬如人子戕人子 入養父母必不說” 『松穆館燼餘稿』 493면.

이익적인 면은 불교와 신기신앙이 함께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¹⁰⁶⁾ 일본의 도시와 시골에 널리 있는 수많은 절들은 사후 세계의 두려움에 대한 방편이었다. 이언진은 일본인들이 두려운 미래에 대한 의지처로 부처를 섬기고 사후에 보장 받기 위해 날마다 향 피우고 공양 올리는 모습을 목격한다. 향 피우고 공양 올리지 않아도 자기 안에 부처가 있고 수행을 통해 스스로가 부처가 된다¹⁰⁷⁾라고 하는 이언진은 맹목적인 형식에 얽매이는 日人들을 華夷 의식 속에서 바라보았다. 그토록 부처를 섬기면서도 부처의 교를 어기고 살생을 저지르는 일본인들을 蠻夷 풍속이라 여기며 맹렬히 비난한다.

조선 사신들은 일본 종교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佛像에 대한 사실적 모습을 기록한 원증거는 “동쪽을 향해 금불을 모셔놓았고 금불의 좌우에는 모두 작은 나무 조각으로 만든 신주가 있었으며 각각의 신주에는 성명이 적혀 있었다. 대개 그들의 풍속에 집에서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법이 없어 사람이 죽으면 부처님께 제사를 올리고 나무 신주를 세워 두고 해마다 약간의 쌀을 바쳐 스님들이 제사지내도록 한다.”¹⁰⁸⁾라며 원증거는 단지 절에서 바라본 불상과 신주의 모습에 대한 사실적 기록만 할 뿐 일본의 종교와 日人들의 생활 양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남옥은 『일관기』의 <총기>에서 “서양은 배를 남해에 정박한다. 천주교를 왜국에 전파했다.”¹⁰⁹⁾고 기록하였다. 남옥은 일본에 천주교가 전파되고 있음을 말하지만 천주교인들의 선교 경로와 일본의 종교 성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 문사들은 성리학만을 문명으로 인정할 뿐이고

106) 스에키 후미코, 앞의 책, 71면.

107) “과거의 부처는 이전의 나요 / 미래의 부처는 죽은 후의 나라 / 하나의 부처가 현존하고 있으니 / 이 거리의 이씨라네” 정훈 역주, 앞의 책, 160면.

“過去佛我前我 未來佛身後身 一箇佛方現在 是衛衛姓李人)” <衛衛居室> 146, 『松穆館燼餘稿』 160면.

108) 원증거 지음,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111면.

109) 남옥 지음, 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542면.

이단으로 보는 불교, 천주교 등에 대해서는 관심 밖의 일이다.

그러나 이언진은 일본에 내재되어 있는 서양 세력과 그들의 목적 그리고 선교 방법을 이미 인식하면서 일본을 판단하였다. 일본 내부에 잠재되어 많은 종교를 분별없이 섬기는 일본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야만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종교적 측면에서 이언진은 유교의 진리인 육경으로써 그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華夷인식이 나타난다. 무지한 일본인들의 종교 성향에 대해 그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선진 문화국의 문사 입장인 것이다.

③ 육경이 일월처럼 세상에 밝혀 있으나
이 나라 사람들의 까막눈 어이하리
해 돋는 곳과 해 지는 곳 무슨 이치 다르리오
따르면 성인되고 배반하면 악인되네
우리 스승님 말씀으로 대중을 가르치고자
시로써 목탁을 대신하네¹¹⁰⁾

‘육경’은 유교의 근본 진리이며 ‘해와 달’에 비유하여 세상의 이치가 유교적 이념을 따른다는 말이다. 이언진은 많은 신을 모시며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일본에 대해 유교의 가르침과 보편적 진리로써 그들을 가르치고자 한다. 일본 민생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바라본 이언진은 일본의 평민들이 불교를 숭상하며 부처를 섬기고 수많은 귀신을 모시면서 서양 예수회 가톨릭 영향도 받지만 유교 사상은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인을 가르켜 ‘까막눈 어이하리’라며 한탄한다. ‘해 돋는 곳’과 ‘해 지는 곳’은 불변의 이치이며 이러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유교 이념으로써 일본인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언진의 유가 사상을 볼 수 있다. 실제 일본에서 유학은 평

110) “六經中天揚文明 此邦之人眼如漆 暘谷昧谷無二理 順之則聖背禱机 吾師訓吾訓介衆 以詩替金口木舌” 『松穆館燼餘稿』 493면.

민들보다 엘리트 집단의 학문이었다.

일본 에도시대의 유학은 지식인층의 학문이며 무사, 학자 등의 지배자층에서 유학을 사상으로 받아들여 정치와 사회의 원리로 삼고자 하였다.¹¹¹⁾ 일반 평민층에서는 유교·유학의 사회적 보급 정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고 한정되어 있었다. 진지하게 유학을 신봉하고 출현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¹¹²⁾ 이언진이 참여한 계미사행 당시는 일본의 유학이 번성하여 荻生徂徠의 古文辭學이 등장하고 이에 반박하는 反徂徠學波도 등장하는 등 유학이 성행하고 있었지만¹¹³⁾ 지배계층을 위한 학문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피지배층에서는 학문보다는 신도와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조선에서는 평민들의 생활양식이 ‘충’과 ‘효’의 유교 사상을 근저에 두지만 일본 평민들의 생활은 신도와 불교, 여러 신앙이 한데 섞여 있었다. 다른 조선 문사들의 무관심과 달리 이언진이 일본의 종교적 관점에서 현실을 관찰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불·도 사상의 얽매임 없이 三教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와 현실적 감각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언진은 특히 불교에 대한 佛心이 컸기 때문에 일본의 절에서 이루어지는 日人들의 물지각성에 더욱 분개하였고 그들의 행동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사행 한시에는 불교와 관련된 시어를 많이 볼 수 있다. ‘病多仍奉佛’¹¹⁴⁾ ‘自吾能作佛 心悟不師初’¹¹⁵⁾ ‘主卽是多實佛’¹¹⁶⁾ ‘閑自在打包僧’¹¹⁷⁾ ‘簷風打木魚’¹¹⁸⁾ ‘好佛反好佛

111) 스에키 후미이코, 앞의 책, 162면.

112) 와타나베 히로시,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 예문서원, 2007, 39면.

113) 구지현, 앞의 논문, 37면.

114) <斜陽明窓蟬聲滿樹>3, 『松穆館燼餘稿』 494면.

“병이 많아 부처를 신봉하고” 정훈 역주, 앞의 책, 89면.

115) <斜陽明窓蟬聲滿樹>12, 『松穆館燼餘稿』 495면.

“내가 능히 부처될 수 있으니 / 마음으로 깨닫고 스승 삼지 않으리” 정훈 역주, 앞의 책, 93면.

116) <日本途中所見>1, 『松穆館燼餘稿』 509면.

“주인이 모두 부처라네” 정훈 역주, 앞의 책, 163면.

所惡’¹¹⁹⁾ 등을 보면 이언진의 불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回頭到岸’¹²⁰⁾은 불교에 “苦海無邊 回頭是岸”이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깨닫고 머
리만 돌리면 곧바로 구제될 수 있다는 뜻으로, 惡人에게 경고하여 마음을
고치고 선을 행하라고 촉구할 때 많이 쓰인다.¹²¹⁾ ③단락에서 마지막 구절
“시로써 목탁을 대신하네”는 목탁 두드려 무지한 일본인들 깨우치고자 하
나 <日陽舟中念惠寔老師言>으로 日人들의 잘못, 즉 일본의 잘못된 종교를
알리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일본 불교의 현실을 적나라
하게 나타내고 있다.

길가는 무리들이 기숙하네
샘물소리 범패와 같고
비문에는 오랑캐 글자가 섞였구나
굴 앞사귀에 누에가 고치를 짓고
보리수 그늘 아래 백로는 고기를 쫓네
풍토는 부처 모시기를 엄히 하면서
북 치고 향 사르며 나물 올리네¹²²⁾

117) <日本途中所見>7, 『松穆館燼餘稿』, 509면.

“탁발승은 한가롭기 그지없네” 정훈 역주, 앞의 책, 164면.

118) <斜陽明窓蟬聲滿樹>12, 『松穆館燼餘稿』 495면.

“처마에 부는 바람 목어를 두드리네” 정훈 역주, 앞의 책, 93면.

119) <日陽舟中念惠寔老師言>, 『松穆館燼餘稿』 493면.

“부처를 섬기되 부처가 싫어하는 짓을 하고” 정훈 역주, 앞의 책, 81면.

120) <斜陽明窓蟬聲滿樹>13, 『松穆館燼餘稿』 495면.

“뱃머리를 돌려 가갸스로 해안에 닿았네” 정훈 역주, 앞의 책, 93면.

121) 이동순, 앞의 논문 90면.

122) 정훈 역주, 앞의 책, 86-87면.

“古寺爲郵置 行徒寄飯初 泉音同梵唄 碑字雜蠻書 橘葉蠶成繭 榕陰鶯守魚 土風嚴事佛 撞鼓薦
香蔬” <痔臥壹岐島舟中 風聲水聲雨聲蛙吠聲集燈下 人間世牢騷鬱陶至矣 間聞老奴寢語
說 園圃中事 情不得不動 而喉不得不癢矣 吐而筆之 錯亂無序 其言萬里行李之所經者什一
平生志業之所存者十九 一切無模擬心矜伎 心恬波鼓枻以自取適耳>8, 『松穆館燼餘稿』 494
면.

일본에서 부처를 모시는 절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숙소이자 죽은 이를 지켜주는 묘자리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와 귀신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언진은 ‘범패’와 ‘보리수’의 경건한 불교 용어를 대비시켜 죽은 이의 사후 세계를 위한 ‘비문의 오랑캐 글자’를 강조하며 세찬 비난을 하고 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아래 수행하는 신자들은 없고 다만 백로의 모습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일본 불교의 현실이다. 일본인들이 부처를 엄히 섬기면서도 향을 사르며 나물을 올려 제사 지내는 것은 불교의 교리에 어긋난 것이라 본다. 선을 행하기 위한 부처의 가르침보다 死者를 위한 형식적 대행을 절에서 할 뿐이라며 이언진은 일본 종교에 대한 華夷觀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3. 자연·문물의 사회적 현실 인식 : <海覽篇>

<海覽篇>은 이언진이 일본의 자연 환경과 근대 문물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일본의 사회적 측면에서 기록한 총평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문화와 종교적 측면에서는 이언진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기술한 <해람편>에서는 이언진의 긍정적인 인식을 살필 수 있다. 오언 96구 <해람편>은 사행시 중에서 장편이자 이언진이 가장 애착을 둔 작품이다. 이언진은 日岐島에서 처음 시를 지어 사신단 일행에게 보여주어 평가받고¹²³⁾ 귀국 후 정서하여 이윽고 남옥에게 비점으로

123) 남옥의 계미년 12월 1일 기록 : “이언진이 <해람편> 및 고체 몇 편을 보여 주었다. 학식이 해박하고 문체가 찬란하니 진실로 당세의 기이한 재주이다. 그 자취가 역관 사 이에 섞여 있는데도 능히 이와 같고 사람됨 또한 밝고 빛나니 가히 진흙 속의 연꽃이라

평가받았다.¹²⁴⁾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면 이언진이 일본에서 기록한 사행 한시를 남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가 확실하며 사행시가 갖는 주된 기능으로 일본의 정세를 탐색하고자 하는 사행록의 성격을 띠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언진은 자신의 詩材를 알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다. 박지원의 <해람편>에 대한 평가와 당대 실학자였던 이덕무 역시 <해람편>에 대한 평가를 그의 문집『청장관전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언진은 <해람편>을 당시 문사들에게 자신의 文才를 인정받고자 하였음이 나타난다. 사행 한시 중 대표시라고 할 수 있는 <해람편>에서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적 관점에서 서술한 이언진의 현실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허경진¹²⁵⁾은 <해람편>을 8단락으로 나누어 다섯 번째 단락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폈다. ⑤단락은 일본인의 생활 습관과 성격 ⑥단락은 일본인들의 말과 글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전체 7단락으로 일본 사회 전체를 자연·문물·일본인에 대한 기준으로 나누어서 사회적 측면을 살피기 위해 일본인에 대한 평을 묶어서 살필 것이다. 다음은 단락별 주요 내용이다.

① 1구 - 10구 : 수많은 나라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인식

고 할 만 했다.” 남옥 지음,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273-274면.

원중거의 계미년 12월 1일 기록 : “譯士인 이언진은 字를 虞裳이라고 하는데 바야흐로 스물 네 살이다. <해람편> 장단구를 쓰고 아울러 고시 두 편을 써서 소매에 넣어 가지고 와서 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좌중에서 돌러가며 읽어보니 모두 붉게 평을 하고 돌려주게 되었다. 모두 기이한 재주였다. 제목을 ‘해람’으로 했으므로 險韻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저 그 체제가 아정하지는 않으나 그 기이하고 밝음은 문무에 통달한 듯하다. 사람이 이와 같은 재주를 가지고도 머리를 수그리고 제사의 직업에 종사하니 애석하구나.” 원중거,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155-156면.

124) 이언진은 통신사행에서 돌아와 본인의 초안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고 精書하여 스승인 이용휴와 제술관이었던 남옥에게 언제 보이고 비점을 받은 것이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스승인 이용휴에게 먼저 보인 다음 靑批·靑貴珠를 받고, 다시 남옥에게 보여 朱批·朱貴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강순애, 앞의 책, 29면.

125) 허경진, 앞의 책, 94면.

- ② 11구 - 28구 : 자원 물자가 풍부한 일본의 자연
- ③ 29구 - 44구 : 서양과 물자 교역으로 번성한 大坂의 근대 문물
- ④ 45구 - 64구 : 변화무쌍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일본의 현실
- ⑤ 65구 - 80구 : 일본인의 행동과 말씨
- ⑥ 81구 - 92구 : 일본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세계의 지식인들
- ⑦ 93구 - 96구 : 사대부에게 권고하는 이언진의 메시지

일곱 단락 가운데 이언진의 현실 인식이 나타나는 부분은 ①, ②, ③, ⑤단락이고 일본의 현실을 보고 평가하는 부분은 ④, ⑥단락이며 권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은 ⑦단락이다. 이언진이 일본 현실을 인식하는 부분은 아름다운 자연, 근대 문물, 일본인에 대한 사회적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고 평가하는 부분은 자연을 빗댄 일본의 잠재력과 세계의 지식인층에 비유하여 그 실상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은 이언진이 나라 밖에서 바라본 조선의 대외적 교류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필자는 현실 인식이 드러난 ①, ②, ③, ⑤단락을 먼저 분석하고 일본에 대해 평가를 한 ④, ⑥단락, 다음으로 메시지가 있는 ⑦단락의 순서대로 살피고자 한다.

먼저 ①단락부터 살펴보면, 지구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조선 외에도 세계를 인식할 줄 아는 이언진의 객관적인 사고가 나타난다.

① 지구 안에 온갖 나라
바둑 돌 놓인 듯 별들이 벌여 있는 듯
월나라의 주먹상투
인도의 까까머리
한족의 도포
오랑캐의 털옷

문명이 있어 말쑥하기도 하고
오랑캐들 재잘거림 같기도 하고
무리로 나뉘고 끼리끼리 모여
온 세상에 가득하네¹²⁶⁾

①단락은 1구에서 10구까지 세계의 여러 민족에 대해 설명한다. 조선만이 명의 뒤를 잇는 유일한 中華이며 그 외에는 오랑캐 민족이라는 조선 사대부의 소중화 사상에 비추어봤을 때 이언진은 각기 다른 생활 방식을 지닌 민족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상대주의적 시각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문화 우월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인다.¹²⁷⁾ 3구에서 8구까지 이언진은 중국 월나라, 제나라, 노나라와 호·맥 민족이 조선과는 다른 머리모양, 민족 특유한 옷차림, 나름의 문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언진은 ⑥단락에서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坤輿萬國全圖』와 세계를 소개하는 사급의『職方外記』에 대해 언급한다. 청나라를 다녀온 이언진은 이미 세계 지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역서양서·지리서 등 西學書を 접하고 조선 외에 다른 나라를 인식하는 세계관이 보다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서학의 연구는 성호학과와 북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익의 문하에서는 漢譯西學書가 ‘書室之玩’이 되고 당시 西學書を 보는 것이 유행이 될 정도로 성행하였다고 한다.¹²⁸⁾ 이언진은 서양서를 통해 각 나라 민족의 특징을 잘 읽어 내었다. 인도의 까까머리는 승려, 한족의 도포는 文士, 호·맥의 털옷은 추운 지방의 흉노족 등 나라

126) “坤輿內萬國 碁置而星列 于粵之魑結 竺乾之祝髮 齊魯之逢掖 胡貊之氍毹 或文明魚雅 或兜離侏休 羣分而類聚 徧土皆是物” 『松穆館燼餘稿』 492면.

127) 강동엽, 앞의 논문, 72면.

128) 『正祖實錄』 21년 6월 경인.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2006, 50면 재인용.

마다 민족적 특징을 잘 포착하여 표현하였다. 이언진은 한 편의 詩에서 다른 문화를 형상화¹²⁹⁾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언진은 ①단락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언급한 것은 ②단락에서 일본을 말하기 위한 전제로 볼 수 있다. 일본 역시 오랑캐 민족이지만 나름의 문명과 그들의 문화가 있음을 말한다. 9구에서 10구까지는 무리대로 나뉘고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은 조선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언진은 선입관으로 일본을 바라보지 않고 부정하지 않았다. 그의 다양한 시각으로 새로운 문명을 바라보는 열린 자세에서 일본을 관찰하고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일본이란 나라는
파도 일렁이는 골짜기 땅이라네
그 숲은 단목이요
그 다음은 해 뜨는 곳이라
계집들은 비단에 수를 놓고
토산품은 꿀과 유자
물고기 중에 괴이한 게 낙지라면
나무 중에 괴이한 건 소철이라네
진산과 방전은
구진성처럼 차례로 배열했네
남북으로 봄가을이 다르고
동서로 낮밤이 갈라졌네
가운데 얹어놓은 대야 모양 산
영롱한 만년설
소를 덮는 아름다리 나무

129) 강동엽, 앞의 논문, 67면.

까치 잡는 아름다운 박옥

단사 황금 주석도

종종 산에서 난다네¹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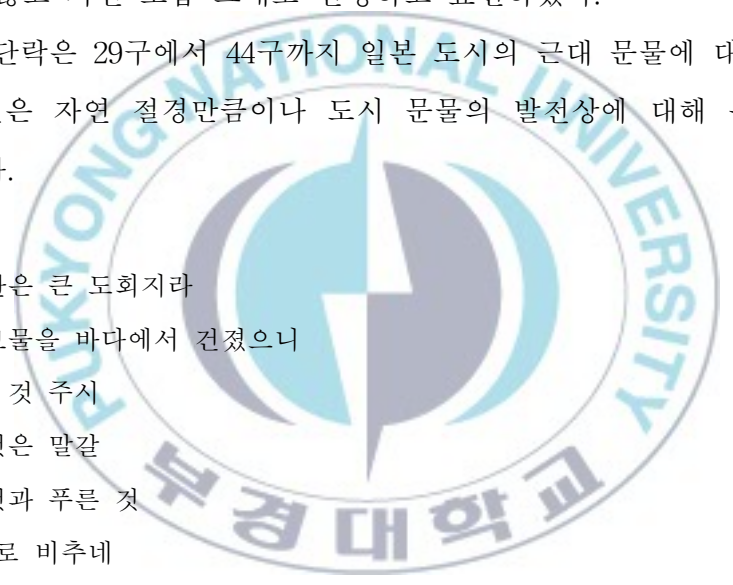
②단락은 11구에서 28구까지 일본의 자연적 조건에 대한 이연진의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난다. 11구에서 14구까지는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말한다. 이연진은 일본이 해를 맞이하는 지리적 조건과 전설상에 나오는 부상 나무가 존재하는 신비로운 곳으로 신선 세계의 나라로 표현하였다. 15구에서 18구까지 일본의 토산품과 산과 바다에 잠재된 자원의 풍부함을 말하며 19구에서 22구까지는 일본 국토의 면적과 넓이를 계절이 다르고 밤낮이 다른 곳으로 그 크기를 표현하고 있다. 23구에서 28구까지는 부사산의 아름다움과 진귀함을 말한다. 나라 한가운데 있는 영롱한 부사산은 옥, 황금, 주석 등 각종 보물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형상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일본의 자연물에 대한 평가는 적대감을 가진 조선 통신사들도 인정하였다. 1719년 제술관으로 다녀온 유유한은 藍島에 머물면서 十洲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자신도 天桃를 도적질한 과거의 인연으로 이곳을 한 번 보는 천행을 얻었다며 휘파람과 시를 읊조리고 경치에 대해 감탄하였다.¹³¹⁾ 서기 金仁謙(1707-1772)은 부사산에 대해 “이리 높은 절정 위에 / 이러한 크나큰 물 / 바다처럼 깊고 멀어 / 그 빛이 심벽하여 / 남도 바다 마치 같고 / 어별 해삼 갖취 있고 / 왕래하는 돛 단 배가 / 이리 가고 저리 가니 / 장함도 장할시고 / 천지간 기관이다 / 우리나라 공갈못을 / 장하다 하거니와 / 여기 비겨 보게 되면 / 자취물과 다를손가?”¹³²⁾ 라며 부사산의 상근호에

130) “日本之爲邦 波壑所蕩潏 其藪則樛木 其次則賓日 女紅則文繡 土宜則橙橘 魚之怪章舉 卉之怪蘇鐵 其鎮山芳甸 句陳配厥秩 南北春秋異 東西晝夜別 中央類覆敦 嵌空龍漠雪 蔽牛之鉅材 抵鵲之美質 與丹砂金錫 皆往往山出”『松穆館燼餘稿』492면.

131) 김태준, 「유교적 문명성과 문학적 교양」,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1집,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1985년, 81면.

대해 감탄한다. 우리나라 상주에 있는 공검지와 비교하여 부사산의 장대함을 말하고 있다. 이언진은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 구체적으로 부사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엮어 놓은 대야 모양’ ‘수많은 소를 가릴만한 나무’ ‘옥을 던져서 까치를 잡을 만큼 널려 있는 박옥’ ‘황금 주석이 나오는 산’ 등으로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사실감을 더해 주고 있다. 이언진은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 방대한 면적, 자원의 풍부함, 부사산의 영롱함 등 자연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일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 자연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였다.

다음 ③단락은 29구에서 44구까지 일본 도시의 근대 문물에 대한 평가이다. 이언진은 자연 절경만큼이나 도시 문물의 발전상에 대해 우호적으로 인식하였다.



③ 대관은 큰 도회지라
온갖 보물을 바다에서 건졌으니
빛나는 것 주시
둥근 것은 말갈
붉은 것과 푸른 것
서로서로 비추네
기이한 용연향 태우고
아골 보석 언덕을 이루네
상아는 코끼리 입에서 뿜왔고
서각은 물소 머리에서 자랐네
페르시아인의 푸른 눈
절강성이 무색한 시장
수레를 밀치며 떼지어 모여들고

132) 김인검, 최강현 역주, 『일동장유가』, 보고사, 2007, 322면.

거간꾼은 수천이나 늘어섰네
앞바다는 지중해라
온갖 물건 생동하네¹³³⁾

이언진은 일본 大坂에서 세계의 갖가지 물화가 넘쳐나는 형상을 묘사하였다. 세계 곳곳의 물화를 접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물자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대판이었다. 일본의 바다와 산에서 나는 자원이 풍부한데 세계 곳곳에서 나는 물자까지 대판에 넘쳐나니 세계와 교류하고 있는 일본의 발전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변화함을 중국 ‘절강의 시장’에 비유하여 그에 못지않음을 말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 포르투갈 耶蘇會社들로부터 시작하여 和蘭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고 있었으며 중국 浙江으로 왕래하는 貿易商船들이 많았다.¹³⁴⁾ 이언진은 일본에 광범위한 물자들이 쌓이는 그 중심에는 서양과 교류하는 일본의 교역 정책을 인식하였다. 화려하고 번성한 일본 도시들은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 넘쳐나는 재화들로 상공업이 발달하고 자연스럽게 도시 발전을 가져 왔다. 이언진은 이러한 일본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이언진 뿐만 아니라 조선 사신들도 일본의 학문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으나 일본의 경제 발전을 가져온 상공업의 발달과 해외 무역, 출판업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다. 원중거는 도로와 교량, 선박, 수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인 호기심을 내보였고¹³⁵⁾, 조엄은 일본 문물의 발전상을 목격하고 ‘일본지도’ ‘무기’ 배

133) “大坂大都會 環寶海藏竭 光者是朱提 圓者是靺鞨 赤者與緣者 火齊映瑟瑟 奇香燕龍涎 寶石堆鴉骨 牙象口中脫 角犀頭上載 波斯胡目眩 浙江市色奪 却車而徂至 駟僮千戶埒 環海地中海 中涵萬象活” 『松穆館燼餘稿』 492면.

134) 長崎市役所, 『長崎と海外文化』, 長崎市, 1925, 「제8장, 支那文化의 諡入」, 95-99면. 강동엽, 앞의 논문, 68면, 재인용.

135) 박채영, 「현전 원중거의 통신사행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9, 30면.

의 제작 방법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고구마 · 수차 · 제방 등 실용적인 문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¹³⁶⁾ 조선 사신들은 일본의 발달된 문물과 변화한 도시 모습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언진은 서양 각국의 세력과 물자를 교류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보았다. 명·청 교체 이후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무너지면서 조선은 명을 계승한다는 ‘소중화 의식’이 도래되고 일본에서는 일본중심주의의 새로운 ‘일본형 화이의식’이 나타나게 된다. 조선의 ‘탈중화’과정은 조선의 문화가 곧 중화의 문화라는 ‘문화적 자존의식’을 가지며 명을 이어간다는 ‘소중화의식’으로 팽창되었고 일본의 ‘탈중화’과정은 기존의 대명 관계 루트였던 조선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중국인의 밀항과 유럽 선박의 교역을 그 대로 인정함으로써 활발한 무역의 장이 되어갔다. 조선은 자존적인 자기 확인 인식이었던 긍정적 측면인 반면, 대외인식은 자기중심주의의 고립주의로 경직화되어 현실적인 대응능력을 둔화시켜갔다.¹³⁷⁾

조선이 자국 문화 우월주의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대외 정책에 비해 일본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서양화되어 가는 일본의 모습을 이언진은 감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언진은 그의 눈에 비친 일본의 화려한 현상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서양에서 들어온 물질 만능의 위험성을 발견한다.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물질이 중심이 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주변도 보지 않는 日人들의 교활함을 본 것이다.

돈이란 문자에는 무기 형상 있건만
세상 사람들 전혀 살피지 않네
두 개의 창이 한 돈을 다투니

136) 정영문, 「『海槎日記』 연구」, 『온지논총』 제10집, 온지학회, 2004, 93면.

137)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6, 211면-225면.

탐 하는 자 반드시 죽으리라¹³⁸⁾

일본에 우수한 물자들이 넘쳐나면서 물질 문명이 중요시 되고 돈이 중심이 되어 일본인들은 살생도 쉽게 하면서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일본 현실의 모습이다. 이언진은 물질을 탐하지 않는 자신의 기본적 관념을 말하지만 일본에서 기록한 사행시임을 짐작해보면 일본 현실을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대판의 변화함과 화려함을 인식한 이언진은 부에 대한 인식을 일본에서 더욱 느꼈을 것이다. 간계한 습성을 가진 일본인들은 물질 앞에서 더욱 사나워지고 교활해지며 자신의 손해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일본인들의 습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⑤단락은 65구에서 80구까지 일본인들에 대한 이언진의 부정적 인식이다.

⑤ 백성들은 맨 몸에 갓을 쓰고
독기를 드러내니 전갈과 같네
일을 당해서는 죽 꿔듯 소란하고
남 해치려 도모할 땐 쥐처럼 교활하네.
이익을 구차하게 꺾어서 남을 해치고
조금만 화나도 멧돼지처럼 대들고,
아녀자들은 희롱을 일삼고
아이들은 일을 꾸며댄다.
선조를 등지고 귀신에 혹하고
사람 죽이기 좋아하면서 부처에 아첨하네.
글자는 새 발자국 같고
말은 재잘거리는 새소리 같네

138) 정훈 역주, 앞의 책, 167면.

“錢字明有兵象 世人皆自不察 兩戈並爭一金 貧則必遭其殺”, <日本途中所見>¹⁸, 『松穆館燼餘稿』 510면.

남녀 어울리기 사슴과 같고
 벗들은 자라와 물고기 같네
 재잘거리는 말소리
 도무지 알아 들을 수 없네¹³⁹⁾

65구에서 74구까지는 일본의 남녀노소 습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맨 몸에 갓을 쓴 백성’은 오랑캐가 문명인을 따라 하기 위해 발가벗은 몸에 갓을 쓴 모양이다.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기 위해 어른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우스꽝스러운 일본인에 대한 이언진의 우월감이 나타난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인은 이익을 위해서는 구차함을 마다않고 남을 해치기도 하며 부녀자들은 희롱을 일삼고 아이들조차 순수함이 없는 것을 비난한다. 75구에서 80구까지 일본의 말과 글자에 대해 설명한다. 이언진은 한자도 아닌 일본 문자는 ‘새 발자국’ 같고 재잘거리는 일본말은 ‘새소리’에 비유하여 일본의 언어와 글을 천시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남녀 어울림은 ‘사슴’과 같이 음탕하여 일본의 번성함 이면에 물질이 만연해 있는 일본인들의 탐욕을 표현하였다.

대판에서 일어난 도훈도 최천중 피살사건이 바로 그 예이다. 최천중이 거울을 잃고 일인 전장에게 일본인은 도적질을 잘한다고 하면서 말채찍으로 때리자 일인 전장은 그것을 분히 여겨 잠든 틈에 들어가 살해했다. 18세기 일본 국학자 上田秋成(1734-1809)는 그의 『胆大小心錄』에서는 대마도 家老 平田將監이란 자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아 조선의 역관들이 대마도인과 결탁하여 자행하던 밀무역의 이해관계가 빚어낸 것이라고 한다.¹⁴⁰⁾ 일본인은 밀무역에 따르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손해를 보고는 참

139) “其民裸而冠 外蜚中則蜮 遇事則癰沸 謀人則鼠黠 苟利則蠶射 小怒則豕突 婦女事嬉諠 童子設機括 背先而淫鬼 嗜殺而佞佛 書未離鳥跡 語未離鳩舌 牝牡類麀鹿 朋流同魚鼈 言語之啁啾 靛象譯未悉.” 『松穆館燼餘稿』 492면.

140) 미야테 히데요시, 『역사적으로 본 일본인의 한국관』, 이해순, 『조선통신사』,

지 못하는 일본인의 습성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도훈도 최천중 피살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물질에 대한 양국 문사의 탐욕으로 볼 수 있다.

이언진은 일본의 자연 풍광, 근대 문물, 일본인을 경험하면서 일본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인식하였다. 그는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 예찬하며 근대 문물의 번성함에서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지닌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녔다. 반면에 부를 인지한 일본인의 습성에 대해서는 멸시하면서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언진은 일본의 전체적 측면에서 일본의 문화·종교·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허경진¹⁴¹⁾은 <해람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①단락과 ⑦단락이라 하였다. ①단락은 저마다의 존재 방식을 인정하는 이언진의 세계 인식을 볼 수 있고 ⑦단락은 선린의 큰 계책으로 “화평함을 잃지 말자”는 이언진의 마음자세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해람편>에서 가장 주요 부분이 일본에 대한 전체 평가를 내린 ④단락과 ⑥단락 그리고 ⑦단락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④단락은 자연에 빗대어 일본의 현재를 말하며 ⑥단락은 세계 지식인들에 비유하여 일본 실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조선의 지배층을 빗대어 문학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⑦단락은 짧지만 핵심을 담은 이언진의 메시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 ④단락은 45구에서 64구까지 달씨가 변화됨에 따라 하늘과 바다에서 펼쳐지는 광경들이다.

④ 후어는 등에 돛대 달고
추어는 꼬리에 깃발을 달았구나
흙무더기 굴조개의 집이요
꿈꿈대며 구멍 막는 거북이

251-252면 재인용.

141) 허경진, 앞의 책, 94면.

산호바다로 변할 때는
 도깨비불이 타는 듯
 검푸른 바다 되니
 구름 노을 찬란하네
 은빛 바다로 변하니
 별 무더기 흩어진 듯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 필 비단 펼쳐진 듯
 큰 용광로 될 때는
 오색 빛이 솟아나네
 하늘을 가르고 용이 날 때
 천둥소리 우르릉 광광
 동쪽 구름 사이로 용 발톱 번쩍이고
 서쪽 구름 사이로 다리 보이네
 수염 달린 두렁허리와 마갑주는
 기이함 감춘 듯 황홀한 빛 자랑하네¹⁴²⁾

45구에서 48구까지는 바다 생물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후어’와 ‘추어’는 바다로 나가기 위해 ‘돛대’와 ‘깃발’을 달아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굴조개’와 ‘거북이’는 단단한 자신의 집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49구에서 58구까지는 변화하는 바다 날씨에 따라 하늘의 오색찬란한 자연 풍경을 형상화하였고 59구에서 64구까지는 하늘의 구름 모습이다. 이언진은 일본의 자연 중에서도 바다와 하늘을 집중적으로 묘사하여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자아낸다. ‘후어’ ‘추어’ ‘거북이’의 움직임은 생동감이 넘친

142) “鸞腹帆慢張 鰐尾旌旗綴 堆磊蠣粘房 鳳龜龜次窟 忽變珊瑚海 煜曜陰火烈 忽變紺碧海雲霞象色設 忽變水銀海 星宿萬顆撒 忽變大染局 綾羅爛千疋 忽變大鎔鑄 五金光迸發 龍子擘天飛 千電萬霆夏 東雲閃鱗爪 西雲露肢節 髮鰐馬甲柱 秘怪恣恍惚.”『松穆館燼餘稿』492면.

다. 바다와 하늘의 모습은 색깔을 입혀 시각적으로 대비하여 신비로움을 더해준다. ‘산호바다’와 ‘도깨비불’은 푸른 빛과 붉은 빛을 대조하여 색깔의 대비를 강조하고 ‘검은 바다’와 ‘태양빛 노을’은 검은 빛과 붉은 빛을 대비시켜 검은 색을 더욱 검게 하며 붉은 빛은 더욱 붉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은빛 바다’와 ‘별 무더기’, ‘천 필의 비단’과 ‘오색빛’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오색찬란한 형상이다. 그리고 구름은 ‘거대한 용’ ‘두렁허리’ ‘마갑주’의 모습으로 용의 발톱, 다리, 크기, 날아오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천둥소리’와 ‘기이함’까지 더해져 힘찬 용의 모습으로 구름을 묘사하였다. 색깔의 대비와 생동감 있는 묘사는 바다 생물의 움직임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하늘로, 하늘 속의 구름으로 공간이 확대되어 사실감을 더해주는 효과를 나타낸다. 일본의 바다와 하늘에 대한 아름다움을 시각화시켜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④단락에서 이언진은 일본을 향한 이언진의 내면적 인식을 자연에 빗대어 인격화하였다.¹⁴³⁾ 다변적인 ‘바다’는 서양 세력으로, 그에 대응하는 ‘도깨비불’ ‘노을’ ‘별’ ‘비단’은 일본을 상징한다. 이언진은 조선·중국·일본의 범주에서 벗어난 서양을 인식하여 그들과 교류하는 일본 사회를 자연과 연결하여 자신의 내면 의식을 시에 담았다. 이언진은 두 번의 중국 체험과 일본 사행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성하는 일본 사회에 주목하였다. 자연물을 통한 상징적 표현으로 일본을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의 구름은 ‘용’의 모습이다. 대개 보통 ‘용’을 상징하는 것은 ‘황제’나 ‘왕’을 말하는데 여기서 ‘용’은 ‘일본의 천황’을 일컫는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작가의 정신과 사물을 연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마음과 외부 세계를 결합하고 마침내는 동일화하고자 하는 욕구인 것이다.¹⁴⁴⁾ 발톱을

143) 김준오, 『詩論』, 이우출판사, 1988, 283면.

144) 김준오, 앞의 책, 103면.

드러난 거대한 ‘용’의 구름 형상은 도사리고 있는 일본의 관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언진은 일본의 문화·종교·자연·문물·일본인의 습성·식생활·서양인 등 일본 사회를 자연물에 빗대어 상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④단락은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여 실제적 일어난 현상보다는 관념적으로 나타내었다. 시각적 대비와 공간적 효과를 높이고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생물의 역동성을 가미한 것을 보면 이언진은 일본 사회를 ‘생동하는 일본’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81구에서 92구까지 ⑥단락은 세계 지식인들의 저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언진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 선행 문인들의 사행록을 읽으면서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기록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서양 학자들의 지리서에 대한 언급이다.¹⁴⁵⁾

⑥ 초목은 온통 기괴하여
나함이 그 책을 불사르고
온갖 물 모여드니
역생은 항아리 속 쉬파리라
물 속의 도깨비는
사급의 신비한 그림책 같네
도검에 새겨진 銘들
정백이 이어서 다시 쓰네
땅이 등글다는 시비와
해도의 갑과 을은
서양사람 이마두가
실로 짜고 칼로 벤 듯¹⁴⁶⁾

145) 허경진, 앞의 책, 95면.

146) “草木之環奇 羅含焚其帙 百泉之源滙 酈生甕底蟻 水族之不若 思及閤圖說 刀劒之款銘 貞白續再筆 地毯之非是 海島之甲乙 泰西利瑪竇 線織而刀割.” 『松穆館燼餘稿』 493면.

81구에서 88구까지 이언진은 세계적 지식인 나함, 역도원의 『水經注』, 사급의 『職方外記』, 정백의 『古今刀劍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89구에서 92구까지 마테오 리치의 세계 지도는 땅이 둥글다는 지동설과 海島의 정확성을 나타낸다고 칭찬하였다. 이언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지식인들조차 일본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기록한 저서들은 모두 다시 기록해야 한다고 말한다. 羅頤는 중국 동진 때, 관직에서 물러난 뒤 난초와 국화 등 식물을 심고 연구하였다.¹⁴⁷⁾ 그러나 그는 일본의 기이한 산수 초목은 알지 못하고 일본 초목에 대한 내용이 빠진 나함의 책은 엉터리라고 한다. 酈道元(469-527)은 중국 지리학자이며 10년에 걸쳐 저술한 『水經注』 40권은 많은 地圖·地誌를 참조하고 실제의 답사에 따라 지리적 지식을 조직화하였다. 황하의 물줄기를 비롯하여 여러 곳의 물길을 따라 도시와 읍·고적·산과 물을 기록한 지리서로 뛰어난 저서이다.¹⁴⁸⁾ 그러나 이언진의 눈에는 역도원의 『수경주』도 좁은 식견이다. 복잡한 일본의 물길을 모르고서 기록한 지리서는 아무리 뛰어난 저서라 해도 우물 안 개구리 시각으로 더 넓게 보지 못함을 지적한다. 思及(GiulioAleni, 1582-1649)은 이탈리아 브레시아 출신 예수회 선교사이다. 1609년 중국으로 가는 선교사로 임명되어 중국에서 30년 동안 전교활동을 하며 저술활동에 종사하였다. 중국인들은 그를 서양의 공자로 추앙하였다. 사급은 1623년에 마테오리치의 <坤輿萬國全圖>를 수록한 뒤 아시아 등 오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각국의 풍물을 소개하는 『職方外記』를 출간하였다.¹⁴⁹⁾ 이언진은 세계 각국의 기이한 이야기는 있되 일본 바다 속의 신비한 이야기는 빠져 있어서 사급의 책이 다만 그림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급을 혹평하고 있다. 貞白 陶弘景

147) 강순애외, 앞의 책, 26면.

148) 박영근, 『세계인명대사전』, 고려출판사, 1994.

149) 강순애외, 앞의 책, 56면 각주참조.

(456-536)은 중국 남북조 시대의 道士이며 本草醫家로 20세에 1만권의 서적을 독과하여 제나라의 제와 侍讀이 되었다. 그는 유·불·도의 3교에 정통하여 『學苑』 『眞誥』 등을 저술하고, 本草醫學에도 자세했다.¹⁵⁰⁾ 정백은 양나라의 인물, 역대 제왕들과 각국 인물들의 도검에 관하여 기술한 『古今刀劍錄』이 있다. 이언진은 정백의 『古今刀劍錄』에 잘못 기록된 관지가 있어 새로 써야하고 일본에는 명검이 많은데 정백은 다 파악하지 못하여 다시 저술해야 할 정도라며 정백의 학식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李瑪竇(마테오리치, 1552-1610)는 이탈리아의 제스이트파 선교사이며 1601년 천주교 서적들을 저작하였다. 徐光啓(1562-1633), 李之藻(?-1631)의 협력을 얻어 이마두는 과학기술 서적들을 번역하고 중국 최초의 세계 지도로서 유명한 『坤輿萬國全圖』를 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인조 때 사신 정두원이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그의 천문서 1권을 가져왔고, 숙종 때 李頤命(1658-1722)은 그의 천주교, 천문, 역산에 관한 번역서를 독일 사람 켈레르로부터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¹⁵¹⁾ 이언진은 이마두의 세계 지도에는 각 나라의 넓이가 크고 작음이 자로 잰 듯 정확하고 정밀하게 되어 있어 『坤輿萬國全圖』의 뛰어남을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함, 역쟁, 사급, 정백은 세계에서 인정한 우수한 지식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언진은 그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저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정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사대부도 내포하고 있다. 이언진은 이 작품을 사행 중에 사신단 일행들에게 보여주고 귀국 후 사대부들에게도 보여주었던 것을 보면 그가 조선의 지식인들이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암시적으로 세계인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소중화 의식에 사로잡힌

150) 박영근, 위의 책.

151) 박영근, 위의 책.

조선 사대부는 자신만이 우월하다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좁은 식견을 역생에 비유하여 우회적으로 말하였다. 이언진은 이마두의 세계지도를 내세우며 『坤與萬國全圖』가 뛰어나다고 한 것은 海島를 지적하면서 섬나라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이언진은 ⑥단락에서 세계적인 저서를 쓴 저자들도 일본을 모르면 수정해야 함을 말하고 우월 의식에 빠진 조선의 지식인들 또한 번성하는 일본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태문은 총 12차 통신사행 가운데 이언진만큼 일본을 세계 속의 일본으로 적극 확장 고양한 이는 없다¹⁵²⁾며 ⑦단락에서 현실적인 대일 외교방안을 제시하는 안목을 지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교린 외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본문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언진의 대일 외교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보완하고자 한다.

⑦ 비루한 사나이 이 시를 읊어
말은 속되지만 뜻 매우 진실하다.
이웃과 잘 지내는데 큰 계책이 있으니
기미하여 화평함을 잃지 말기를¹⁵³⁾

93구에서 96구까지 마지막 ⑦단락은 일본을 경험한 이언진의 결론이다. <日岐島> <日陽舟中念惠賓老師言> <海覽篇>에서 일본의 문화·종교·사회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평가한 최종적인 결론을 ⑦단락에서 내렸다. 이언진은 일개 역관으로서 자신의 의견이 조선 지배층에 관철될지 의문시 하며 조심스럽게 대일 외교 정책을 제시하였다.

152) 한태문, 「이언진의 문학과 통신사행에서의 세계인식」, 『국어국문학지』 34집, 문창어문학회, 1997, 18면.

153) “鄙夫陳此詩 語俚義甚實 善隣有大謨 羈縻和勿失” 『松穆館燼餘稿』 493면.

‘善隣有大謨’는 조선과 일본이 그동안 조선통신사로 잘 지내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양국이 화평하여 평화로움을 잃지 말고 잘 지내라는 것이다. 계미사행 이후 12차 신미사행(1811)은 역지빙례를 마지막으로 조선통신사의 막이 내려졌고 20세기 전반기 일본의 조선무력 침략을 보면 조선통신사가 원활하게 왕래할 때는 양국사이에 우호·공존의 시대가 전개되었고, 조선통신사의 단절은 양국사이에 불행한 역사의 시작이었다.¹⁵⁴⁾ 11차 계미사행은 겉으로는 양국의 우호를 표하였지만 속으로는 조선과 일본이 자국 민족주의가 심화되어 일방적인 교류가 되고 있었다.¹⁵⁵⁾ 이언진은 사행 당시 대립적인 양국의 분위기를 짐작이라도 한 듯 양국이 무엇보다 화평함을 지속하여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권면하며 현실적인 대외 방안으로 羈縻政策을 제시하였다.

기미정책이란 중국이 주변민족이나 국가를 중국화하지도 않고 적국화하지도 않는 정책이다.¹⁵⁶⁾ 이언진은 조선이 교린체제에서 기미정책으로 일본을 적국화하지 않고 지속적인 왕래를 통해 국가 간의 관계를 끊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기미정책의 내면은 일본과 교류를 맺어 일본의 정세 탐색을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관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에 득이 될 수 있는 교역에도 힘써 능동적인 대외 교류 관계를 가져야 함을 말한다. 사행 기간 동안 이언진이 본 일본은 이미 서구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여 도시 발전과 상업이 성행하는 나라였다. 조선은 일본의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고 문화적 우월의식 속에서 단지 오랑캐로 멸시하는 夷狄國만은 아님을 주장한다.

본고는 이언진의 사행 한시 <日岐島> <日陽舟中念惠賓老師言> <海覽

154) 이진희, 「조선조 후반기의 한일관계」, 『되돌아 본 한일관계사』, 경인문화사, 2005, 156면.

155)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지성의 샘, 1994, 20면.

156) 손승철, 앞의 책, 35-36면.

篇>를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적·종교적·사회적 관점에서 이언진의 일본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언진의 일본 인식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자연, 토산물, 근대 문물의 풍요로움에 대한 긍정과 종교와 물질 추구의 교활함, 도덕적 상실에 대한 부정이 한데 모여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IV. 문학사적 의의

이언진은 영조 시대 인물로 문학사적으로 조선의 문예 부흥기에 활동하였다. 이 시기 조선은 국내적으로 중인계급의 활동이 활발했고 국제적으로도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였다. 특히 18세기 조선은 청나라와의 교류 뿐만 아니라 일본 간 교류도 가장 왕성하게 하여 4차례에 걸쳐 한 번에 300-500명씩의 대규모로 조선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조선 통신사의 중요 임무는 조선 국왕의 國書와 別幅을 德川장군에게 전달하고 돌아와 국왕께 복명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교적 의례에 불과하였다. 조선 문사들의 실질적 임무는 문화적 접촉을 통해 조선의 선진 문화를 과시하고 필담과 시문 창화로 선린우호를 중시하는 것이다.¹⁵⁷⁾ 이 때문에 사행에 참여한 문사들의 문학적 역량은 조선을 대표할 정도로 뛰어났고 그들이 남긴 시와 문장은 당대는 물론이고 문학사적으로도 평가할 만하다.

이언진이 참여한 계미사행은 문사들이 남긴 결과물과 파견규모면에서 절정기에 해당하였다. 譯官의 문학 활동은 三使의 使行錄과는 달리 삼사신의 정형화된 자료와는 구별된다. 역관이자 문인이었던 이언진은 일본 문사와 격이 없는 필담을 나누며 일본에 대해 가식 없는 기록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그가 남긴 사행 한시는 남다른 문학적 가치를 갖는다.

문사들의 기록물이 사행마다 많이 생산되었지만 시대별로 그 내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초기에 속하는 17세기 사행록은 임란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적대감에 기반을 둔 서술이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과 일본의 대내외적인 정세는 안정되고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경계심에서 비롯된 화이론적 시각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점진적으로 줄

157)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14면.

어 들었다. 동시에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이 확대되어 나타났다.¹⁵⁸⁾

초기에 속하는 1655년 6차 통신사행을 다녀온 南龍翼(1628-1692)은 일본을 어디까지나 임란을 일으킨 나라이며 천황·관백의 이원적 정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중화 이외에 천황이 존재하는 것과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 것은 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그의 인식은 중화 중심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⁵⁹⁾ 이처럼 17세기 통신사행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 무너진 문명국 조선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¹⁶⁰⁾ 조선을 華로 여기고 일본을 夷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화이관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기보다 관념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말엽부터 조선과 일본은 양국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인식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719년 9차 사행의 제술관이었던 신유한의 『海遊錄』에는 경직되고 경도된 이전의 시각에서 일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보다 분명히 나타났다. 『해유록』에는 일본의 학문에서부터 음식·기술·문명·서적의 풍부함·정치 제도·경제의 번성·군사·영접식 등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다른 여러 방면에서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조선 문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전에 없던 방대한 기록을 남겼지만, 일본 인식의 기저에는 여전히 조선 문화가 우월하며 일본인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소중화 의식이 깔려 있었다. 18세기 조선 문사들은 통신사 초기 사신들의 적개심에 비해서 화이 인식은 줄었지만 일본을 이적시 하는 근본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언진은 유연한 사고를 지닌 문사였다. 그는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와 현실론적 실리를 주장하는 실학파가 공존하

158) 정훈식·남송우, 「조선후기 통신사행록 소견 견문록의 전개 양상」, 『한국문학논총』 제50집, 2008, 241-247면.

159) 이해순, 앞의 책, 78면.

160) 정은영, 「조선후기통신사와 조선중화주의」, 『국제어문』 46집, 국제어문학회, 2009, 363면.

는 시대에 화이론적 우월 의식과 현실적 감각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조정을 대표하는 삼사신과 달리 이언진은 조선 사회가 표방한 소중화 사상에서 벗어나 중인계급의 시각에서 넓고 자유로운 사유를 하여 조선 문예부흥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언진은 공식적인 업무 수행에 따른 기록보다 문화·사회·종교 등 일상생활에 중점을 두고 일본을 인식하였다. 의례적인 절차보다 평민들의 생활 속에서 관찰하고 일본의 내면까지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계미통신사의 사행록을 살펴보면 직무에 따라 서술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조선 문사들의 일본 인식과 이언진의 일본 인식이 비교된다. 사행의 총책임을 맡은 정사 趙巖(1719-1777)의 『海槎日記』는 공식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정치·외교적 측면이 중점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해사일기』에는 국가적 위신에 관련한 문제로 재배례 과정, 재배례의 의미, 이전의 선례 등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¹⁶¹⁾ 이처럼 외교 의례의 내용과 일본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정세의 객관적인 분석이 주된 내용이다. 조엄이 사행에 임하는 태도는 『해사일기』 11월 27일 기록을 보면 그의 소중화적 華夷 인식에서 서술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옛날 장영이 축을 다스릴 적에 추로의 사람으로 대하였더니, 난민이 모두 양민으로 변화되었다 한다. 이 의리는 본디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의 모든 풍속에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말이 충성스럽고 미더우면 오랑캐 지방에서도 다닐 수 있다’고 한 성인의 훈계를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¹⁶²⁾라고 하여 조엄은 충성스러운 말로써 일본을 대하고 그들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사명감이 나타난다. 오랑캐 일본을 하루 아침에 문명국으로 변화시킬 순 없지만 ‘예의’를 가르치고 너그러운 정책을 펼치면 일본의 蠻夷 풍속도 점차 없어질 것

161) 구지현, 앞의 책, 56면.

162) 조엄, 『해사일기』, 95면.

이라는 선진 문화국의 외교관으로서 사명감을 내보이고 있다.

조엄은 공식적인 업무보고 일지를 기록하여 국가적 차원의 위신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의식의 진행, 예단, 서계에 이르는 진행과정을 기록하여 대외적인 인식에 주력하였다. 그래서 통신사 전체를 관할하였던 조엄은 일본인들의 사소한 일상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있었다. 조엄은 福利가 생긴다는 조선의 글씨와 시문을 구하는 일본인들을 가리켜 “조선은 예의의 나라 이므로 존귀하게 여겨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그 필적까지 사랑한 것”¹⁶³⁾이라며 조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반면 이언진은 이단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조선과 다른 학문을 지향하는 일본 문사들과 자유롭게 논하면서 일본 문학의 현실을 살폈다. 문학적 자존 의식을 지닌 조엄과 현실에서 일본 학문의 실상을 파악하며 그들의 문학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던 이언진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조엄의 『해사일기』는 공식적인 업무일지와 그들의 의식 절차, 국가적 위용을 과시하는 데는 객관적 서술이지만 소중화 의식에 간혀 관념적으로 바라본 일본의 현실적 문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본다.

일본인과 필담 창화를 하여 조선의 문화를 선양하는 데 주목적을 둔 제술관은 서기와 함께 일본 문사들과 수창하여 일본 제반 사항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제술관 남옥의 『日觀記』 특징은 일본의 文詞에 대한 기록이 매우 자세하게 나타난다. 남옥은 일본 문사들과 수창할 때 일본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대판에서 수창하였던 1월 22일자 기록에서 일본 문사들의 이름이 19명, 23일은 26명, 24일 27명, 25일 14명 등 이외에도 일본 문사들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사행 도중 창수했던 인물 500명의 명단이 『일관기』의 <凡例>에도 실려 있다. 남옥은 일본 문사와의 교류보다는 창수를 한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⁴⁾ 이처럼

163) 조엄, 『해사일기』, 137면.

럼 남옥은 일본인과의 시문 창화에 주력하여 제술관으로써의 임무를 충실히 다 하였지만 일본에 대한 그의 대일 인식은 『日觀詩草』에서 나타난다.

『일관시초』는 남옥의 개인적인 사행 체험에 대해 자신의 심경을 시로 표현하였다. 통신사 대부분은 일본의 자연 풍경에 대해 경이로움을 표한다. 특히 부사산에 대해서는 일본에 적대감이 강한 김인겸조차도 칭찬하였다. 그러나 『일관시초』에 보인 남옥의 일본 인식은 매우 완강하게 나타난다. “깎아내지 않았는데도 온통 기이하다네 / 땅 위에 어찌 더위 겪은 눈 있으리오 / 꼭대기 구멍 중에 당연히 찬 기운 굳은 못 있겠지 / 단지 백성도 신하도 없는 형상이니 / 향룡의 슬픔 부른 왜 황제와 흡사하네”¹⁶⁵⁾ 라고 하여 부사산의 장엄한 모습보다 주변에 그와 같이 할 산이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 마치 백성도 신하도 없이 홀로 우뚝한 왕의 모습이어서 향룡의 슬픔을 간직한 채 사라져야 했던 왜왕과 같다고 하였다.¹⁶⁶⁾ 부사산의 아름다움을 자연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夷狄의 산’으로 바라본 남옥의 일본 인식은 분명 일본에 대한 멸시관이 강하게 나타난다. 남옥은 비파호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경치보다 옆에 늘어선 어부 집들과 叢神廟에 대해 언급하며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비파호의 광경에 초점을 둔다.

비파호 봄 빛은 깃 보다 더 푸르고
물 넓고 구름 많아 浪華보다 낭다네.
천 이랑 대 숲 속에 어부 집 뻥뻥하고
굽은 난간 다리 아래 장사치 배 비끼었네
강과 산 모두가 충신묘로 더럽혀지고

164) 구지현, 앞의 책, 63-67면.

165) “不曾鑿削乃全奇 方輿豈有經炎雪 頂竇應成錮冷池 祇是無民無輔象 恰似倭帝亢龍悲” 윤재환, 「『일관시초』를 통해 본 추월 남옥의 일본인식」, 『고전과 해석』 8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294면. 재인용.

166) 윤재환, 위의 논문, 294면.

꽃 나루 온통 부처의 집 단장했네
경계 나뉘어져 우공에 들어갈 길 없으니
기이한 곳 만날 때마다 긴 탄식만하네¹⁶⁷⁾

남옥은 아름다운 비파호가 “충신묘로 더럽혀지고” 일본인들이 자연 경치를 훼손시킨다고 말한다. <우공>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리서로 훼손된 일본의 경치는 <우공>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남옥은 일본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 이상 빛이 나지 않음을 말하였다. 이에 비해 이언진은 일본의 기이한 산수를 모르는 세계적인 저서 나함의 책은 다시 써야함을 주장하고 일본의 복잡한 물길을 모르는 세계의 지리학자 역도원은 좁은 식견이라고 했다. 이러한 이언진의 시각은 남옥의 인식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남옥은 일본 경치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주변의 더러움이나 추함을 들춰내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일관시초』에 나타난 남옥의 일본 인식은 적대감으로 매우 경직된 모습이며 자신의 고정관념 틀 안에서 인식하였다. 제술관 남옥은 소중화 사상이 깊게 자리한 華夷觀으로 일본을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술관으로서 사행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했던 남옥은 일본 현실에 대한 탐색보다 『일관기』에 기록된 수많은 일본인과 응수한 시편의 수가 더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문사와 시문 창화를 위해 발탁된 통신사에는 서기가 있다. 서기에는 성대중, 원중거, 김인겸이 있는데 삼서기는 제술관과 함께 항상 행동을 같이 하였다. 원중거가 “우리 네 사람은 역참 하나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이 제술관의 처소에 함께 들거나 서기의 처소에 함께 들고 했다”고 한 것을 보면 네 사람의 일본 경험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고, 사행록에서 다루는 내용도 비슷하다.¹⁶⁸⁾ 그러나 서기들은 사행록에서 수창의 공적 업무는

167) “琵琶春色碧於紗 水濶雲多勝浪華 千畝篁中漁戶密 曲欄橋下買帆斜 江山盡穢叢神廟 花木全粧釋子家 別界無由歸禹貢 每逢奇處但長嗟” 윤재환, 앞의 논문, 292면, 재인용.

같을지라도 현지에서 느끼는 각자 개인의 감상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난다. 전통 사대부 의식을 지닌 김인겸은 소중화-화이의식으로 표명되는 적개심과 멸시관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대판에서 일본인과 수창한 1월 23일 기록에서 “왜놈이 무수히와 / 필담이 난감하고 / 수창도 지겨웠다. / 병들어 어려우나 / 나라에서 보낸뜻이 / 이놈들을 제어하여 / 빛있게 하심이라”¹⁶⁹⁾라며 수창하는 것 자체가 왜인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회유하고자 하는 김인겸의 華夷사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무수히 몰려드는 일본인들의 수창 요구는 김인겸 뿐만 아니라 조선 문사들 역시 문학적 우월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김인겸은 일본인의 묘사에서 “맨대加里 벌건다리 / 처음으로 만나보니 / 인형이 전혀없어 / 놀랍고 더럽구나”¹⁷⁰⁾라며 일본 사람을 더럽다는 표현으로 천시하는 그의 인식이 나타난다. 이언진이 일본인들의 행동, 의복 색깔, 표정 등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그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과는 대비가 된다. 김인겸은 ‘왜놈’이라든지 ‘예놈’과 같은 말을 자주하여 일본을 알잡아 보고 의도적으로 폄하하였다. 이러한 점은 김인겸이 일본에 대한 강한 적개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⁷¹⁾ 김인겸은 10월 19일 서박포에 머무르며 西福寺에 올라 법당과 일본 승려에 대해 묘사하였다. 그는 검은 가사에 가슴에 흰 고리를 달고 있는 일본 승려¹⁷²⁾의 의상에 대해 건조하게 묘사하고 있다. 김인겸은 불교를 숭상하는 일본에 대해서 그다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듯하다.

서복사에 함께 갔던 원중거는 일본 승려들의 무지함을 말하며 우월함을

168) 구지현, 앞의 책, 63면.

169) 김인겸, 『일동장유가』, 280면.

170) 김인겸, 『일동장유가』, 97면.

171) 우찬중,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일본관」, 전주대 석사학위논문, 1999, 6면.

172) “중의모양 보아하니 / 머리를 다깎고서 / 아무것도 아니쓰고 / 천릭같은 거문옷을 / 담뱃이 입은위에 / 가사를 메었으되 / 삿로만든 흰고리를 / 가슴에 달고있다.” 김인겸, 『일동장유가』, 162-163면.

가지고 기록하였다. “1711년 사행 때 종사관 이방언이 절구 한 수를 남기자 스님이 잘 장식하여 병풍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도 지금 스님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을 만나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¹⁷³⁾라고 하여 원중거는 승려들의 무지함에 우월감을 내보이고 있다. 그의 사상은 불교보다 유가의 우월함이 내재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이언진은 일본 승려에 대해서만 인식한 서기들과 달리 일본의 불교 뿐만 아니라 신을 섬기고 서양 예수회의 선교로 전파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본의 다양한 종교로 인해 日人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까지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언진이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이며 이를 통해 일본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는 그의 예리한 관찰력을 볼 수가 있다. 조선 문사들은 선진 문화를 전수해 준다는 소중화적 우월감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애써 부정하지만 이언진은 日人들의 생활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여 대안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일본을 관찰하는 통신사의 입장에서 이언진이 포착한 시선은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했던 현실적 감각을 지닌 문사로서 의미가 있다.

이언진은 사행에서 경험한 일본의 현실 인식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문학적으로 참신한 글을 짓기 위해 詩文형태인 사행시로 나타내었다. 재미사행록의 『해사일기』, 『승사록』, 『일관기』, 『일본록』 등은 주로 일기 형식이 중심으로 되어 산문 형태를 지니며 가사에는 김인겸의 『일동장유가』가 있다.¹⁷⁴⁾ 산문으로 된 사행록들은 사실 기록이 그 중심을 이루고 가사로

173) 원중거,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85면.

174) 하우봉은 사행록의 체제를 日記, 詩文, 日記+聞見錄, 日記+詩文, 日記+聞見錄+詩文, 聞見錄의 6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 『역사학보』 112집, 1986, 82면.

이루어진 것들은 사신들의 사적인 감정들을 시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사행시는 산문에 있어서의 사실 기록과 가사에 있어서 사신 개개인의 감정적인 시적 표현을 모두 갖춘 것이다.¹⁷⁵⁾ 사행시의 특성을 지닌 이언진의 사행 한시는 일본 현실에 대한 사실 기록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언진의 감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언진의 사행 한시는 일본 인식을 조선 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며 그의 대일 인식이 압축되어 나타난 문학적 소산이라 본다.

이언진의 일본 인식은 그의 사상적, 문학적 배경인 실학 사상과 신분 질서의 제약을 둔 기존 사회 체제에 대한 그의 저항 정신이 바탕이 되었다. 그는 사실적인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선입견을 배제하고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직시하며 일본 현실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언진은 그의 사행 한시에 이를 반영하여 일부 기존의 우월 의식 속에서 일본을 인식한 점도 있지만 여타 문사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의 인식은 의례적인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측면의 ‘官’에서 나타나는 우월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民’의 생활 속에서 모순된 현실을 관찰하고 인식한 것이다. 조선 사신들이 소중화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에 갇혀 성리학 외에는 이단으로 치부해버린 관념적 인식과 달리 이언진은 열린 자세로 그들과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간파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성리학이 점차 쇠퇴기에 들고 일본과 개항하는 근대기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중세의 전통적 관념과 일본의 근대 문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문제시 된다. 관념적 인식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감각을 보여주었던 이언진의 일본 인식은 18세기 조선의 소중화적 흐름 속에서 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계미사행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175) 엄경흠, 앞의 논문, 168면.

V. 결론

이언진은 역관으로서 통신사의 절정을 이루었던 11차 계미사행에 참여하여 일본의 실상을 사행 한시로 기록하였다. 다른 문사들처럼 이언진은 사행록이라는 문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다 남은 그의 시고를 모은 『松穆館燼餘稿』에 사행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행 한시 11題 62首 중에서 일본의 문화·종교·사회면에 걸쳐 작가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日岐島> <日陽舟中念惠寔老師言> <海覽篇>을 중심으로 이언진의 일본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성리학이란 통치 철학과 소중화 의식의 문화 우월주의에 기반을 둔 조선 사대부 사회의 경직된 대일 관과는 달리 현실적인 일본의 실상을 유연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 속에 반영하였다.

계미사행에서 한학 역관으로 押物通事의 직무로 참여한 이언진의 위치는 독특하였다. 정사와 같은 조선 통신사의 전체 수행원들을 총괄하는 사행 임무의 무게감이 없었고 일본 문사들과 의무적인 시문 창화를 해야 하는 제술관과 서기들과 같은 부담감도 없었다. 또한 왜학 역관들이 수행한 업무처럼 조선과 일본의 양측을 고려하여 사신들을 보조하는 외교적 실무자도 아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언진은 사행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일본 문사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의무감보다 문화적 교류의 호기심이 더 많았다. 의례적인 절차보다 생동하는 일본의 현실을 보는 감각적인 면이 뛰어났다. 계미사행에 참여한 조엄, 남옥, 원중거는 40대의 원숙한 연령이었으며 김인겸은 57세로 조선 사대부 사상이 뿌리 깊게 박힌 전통적 소중화 사상을 지닌 원로 사신이었다. 그에 비해 이언진은 24세의 젊은 나이로 자존

심과 열정이 충만하여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감성적이고 일본의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에서 보다 유연할 수 있었다.

이언진은 일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자연 환경, 문물, 생활 방식, 종교, 말, 글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모순점과 야만성 그리고 잠재력을 보았다. 사진들은 일본의 변화하고 북적이는 도시의 대로를 보았다면 이언진은 대로의 모퉁이에서 인간의 생활 양태를 포착하였다. 그는 일본의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중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이 있었으므로 더욱 관찰력 있게 평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언진의 일본 인식은 옳고 그림을 인식하고 생동하는 자연 경치를 찬탄하는 열린 시각과 소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언진은 관념적인 것보다 일본 평민들의 생활 속에서 현실을 체득하며 일본에 대한 인식을 다져 나갔다. <일기도>는 방일한 조선 통신사를 영접하는 일본 관청의 의례식에 대한 내용으로 형식적인 절차보다 그것을 지켜 보고 있는 日人들을 묘사하였다. 이언진은 의식을 치루는 行禮의 중요성보다 민생들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사실적 관찰로 문화적 우월감과 정원의 풍성한 토산물을 통해 일본인들의 풍요로운 생활상을 인식하였다. 조선 사진들이 일본인을 夷狄이라 여기고 멸시하는 관점과 달리 이언진은 우월 의식 속에서 상대를 인식하는 열린 의식을 볼 수 있다.

<일양주중념해환노사언>에서 이언진은 일본의 종교에 대해 살폈다. 이언진은 불교와 동시에 많은 신을 섬기는 신도, 그리고 천주교가 한데 섞여 무분별한 종교를 섬기는 일본인들의 모순점을 비난하였다. 이언진은 서양의 천주교 세력이 일본에 이미 전파되어 있다는 사실을 읽어내는 국제적 안목을 지니며 중심이 없는 일본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華夷 인식을 드러내었다.

<해람편>에서 이언진은 일본의 자연·근대 문물·일본인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조선의 대일방안을 제시한다. 이언진은 자연에서 나는 자원의 풍부함과 교류를 통한 서양 문물의 번성함을 인식하는 동시에 부를 쫓아가는 일본인들의 간교함 등 양면성을 파악하는 현실적 감각을 지녔다. 이러한 시각으로 이언진은 일본의 실상을 역동적이고 잠재력을 지닌 일본으로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언진은 일본 현실에서 부유함이 주는 긍정과 물질에 따르는 부정적인 면을 파악하는 양면성을 통해 조선의 대일 외교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 점이 의의를 지닌다.

이언진의 사행 한시는 문학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념적 사고와 현실적 인식의 괴리감을 나타내었다. 공식적인 문서로서 사행록에 담을 수 없는 개인적인 감상과 소회를 한시 속에 표현하여 한시의 형식적 엄격함을 자신의 방식으로 무너뜨리고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그의 사행 한시는 18세기 명분을 중시하는 소중화적 사대부 사회와 이해관계의 실리를 중시하는 일부 지식인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일본의 현실 인식을 그려내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李彦瑱, 『松穆館燼餘稿』, 서울大學校 奎章閣藏本, 민족문화추진회, 2000.
- 李彦瑱, 정 훈 역주, 『국역 松穆館燼餘稿』, 신아출판사, 2004.
- 김인검, 최강현 역주, 『일동장유가』, 보고사, 2007.
- 남 옥, 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사, 2006.
- 박지원,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하, 돌베개, 2007.
- 朴趾源, 『燕巖集卷之八別集』, <放瑠閣外傳-虞裳傳>, 한국고전번역원DB.
- 박희병, 『저항과 아만』 : <호동거실>평설, 돌베개, 2009.
- 성대중, 홍학희 옮김, 『부사산 비파호를 날듯이 건너』, 소명출판사, 2006.
- 원중거, 김경숙 옮김,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사, 2006.
- 李德懋, 『靑莊館全書』, <耳目口心書>, 한국고전번역원DB.
- 李德懋, 『靑莊館全書』, <清脾錄>, 한국고전번역원DB.
- 조 엄, 『고전국역총서 해행총재Ⅶ』, 민족문화추진회, 1974.

2. 단행본

-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 강순애·심경호·허경진·구지현, 『우상잉복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문화사, 2008.
-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사, 2006.
- 김준오, 『詩論』, 이우출판사, 1988.

- 민두기,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1969.
- 박영근, 『세계인명대사전』, 고려출판사, 1994.
- 박희병, 『골목길 나의 집』, 돌베개, 2009.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지성의 샘, 1994.
- 스에키 후미이코 지음, 백승연 옮김, 『일본 종교사』, 논형, 2009.
-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 이진희, 『되돌아 본 한일관계사』, 경인문화사, 2005.
-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와타나베 히로시 지음, 박홍규 지음,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 예문서원, 2007.
- 정 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 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3』, 학고방, 2008.
- 정후수, 『조선후기 중인문학연구』, 깊은샘, 1990.
-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2006.
- 한국18세기 학회 엮음, 『18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 태학사, 2007.
- 허동현, 『근대한일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2000.
- 허경진, 『조선위향문학사』, 태학사, 1997.
- 허경진, 『조선의 르네상스인 중인』, 랜덤하우스, 2008.

3. 논문

- 강동엽, 「<우상전>에 투영된 이언진과 그의 세계인식」, 『건국어문학』 19집,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 구지현, 「이언진과 일본문사교류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23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 김기중, 「<동호거실>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2.
- 김동준, 「이용휴 한시와 이언진 한시의 대비론」, 『한국한시연구』 15집, 한국한시학회, 2007.
- 김동준, 「이언진 한시의 실험성과 『동호거실』」, 『한국한문학연구』 39집, 한국한문학회, 2007.
- 김보경, 「계미사행 조선 문사들의 강호 체험과 그 의미」, 『한문학보』 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 김보경, 「남옥의 『일관기』 연구」, 『한국고전연구』 1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김성진, 「남옥의 생애와 일본에서의 필담창수」, 『한국한문학연구』 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 김수중, 「<허생전>의 시대정신과 현대적 적용의 문제」, 『한민족어문학』 56집, 한민족어문학회, 2010.
- 김요섭, 「일본인의 의식 및 종교 이해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윤희, 「18세기 신유한의 일본인식에 대한 고찰」, 이화여대, 1987.
- 김태준, 「유교적 문명성과 문학적 교양」, 『동방문화비교연구총서』 1집, 한국동방문화비교연구회, 1985년.
- 김희숙, 「조정 박제가의 정치 경제사상에 관한 고찰 : <북학의>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박갑원, 「우상 이언진의 시세계」,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6.
- 박기석, 「<우상전>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 박애경, 「조선 후기의 일본 기행가사와 일본관」 『18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 태학사, 2007.
- 박준호, 「혜환 이용휴 문학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9.

- 박재금, 「원중거의 『화국지』에 나타난 일본인식」,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박채영, 「현전 원중거의 통신사행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9.
- 박태순, 「계미 통신사의 일본관」, 『일본평론』 4집, 1991.
- 백옥경, 「역관 오대령의 일본인식」, 『조선시대사학보』 38집, 조선시대사학회, 2006.
- 손민희, 「역관 홍우재의 일본인식」, 명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손승철, 「조선시대 『海東諸國紀』와 『和國志』를 통해 본 일본의 표상」,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4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 손영화, 「우상 이언진의 <호동거실>에 나타난 불우의식」, 『개신어문연구』 31집, 개신어문학회, 2010.
- 신로사, 「원중거의 화국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엄경흠, 「한국 사행시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오바타 미치히로,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관과 그 한계」, 『한일관계사연구』 19집, 한일관계사학회, 2003.
- 우찬중,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일본관」, 전주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윤재환, 「『日觀詩草』를 통해 본 추월 남옥의 일본인식」, 『고전과 해석』 8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이군선, 「사행시의 특징과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42집, 동방한문학회, 2010.
- 이계용,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성결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이동순, 「이언진 시의 독창성 고찰」, 『한국고전연구』 1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이동순, 「이언진 문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 이동찬, 「18세기 대일 사행체험의 문화적 충격 양상」,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 총서1』, 학고방, 2008.

- 이승수, 「도시문화의 모세혈관, 골목길의 발견 : 이언진의 <호동거실>연작 소고」
『한국고전문학연구』 254집, 한국고전문학회40주년기념, 2010.
- 엄경흠, 「한국사행시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임형택, 「계미통신사와 실학가들의 일본관」, 『18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 태학사, 2007.
- 정 민, 「『東槎餘談』에 실린 이언진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 정영문, 「『해사일기』 연구」, 『온지논총』 10집, 온지학회, 2004.
- 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와 조선중화주의」, 『국제어문』 46집, 국제어문학회, 2009.
- 정한기,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인식 연구」, 『관악어문연구』 25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0.
- 정후수, 「역관 이언진의 시문학교」, 『연구논집』 16집,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6.
- 정 훈, 「우상 이언진의 한시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95.
- 정훈식·남송우, 「조선후기 통시사행록 소재 견문록의 전개 양상」, 『한국문학논총』 50집, 한국문학회, 2008.
- 최진숙, 「청천 신유한의 『해유록』 연구」, 계명교육대학원, 2004.
-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일본연구와 문헌자료 정리」, 『일본사상』 6호, 2004.
- 하우봉, 「이덕무의 일본관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 17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7.
-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일본연구와 문헌자료 정리」, 『일본사상』 6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4.
- 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 『역사학보』 112집, 역사학회, 1986.
- 한태문, 「이언진의 문학관과 통신사행에서의 세계인식」, 『국어국문학지』 34집,

문창어문학회, 1997.

한태문, 「통신사 왕래를 통한 한일 문화교류」, 『지역과 역사』 23집, 부경역사연구소, 2008.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 『동양한문연구』 10집, 동양한문학회, 1996.

허경진·박은애, 「한학역관 오대령과 이언진의 사행기록」, 『조선통신사연구』 9호, 조선통신사학회, 2009.



A study on Eun-jin Lee's view of the Japan presented in his Chinese poem on the Envoy's Travel

Yun Kyoung Ok

Department of Microbiolog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Eun-Jin Lee's consciousness of Japan. Eun-Jin Lee, as a minor writer in the middle class of the late Chosun Dynasty, enjoyed a good reputation of distinguished talents in Chinese Poetry. But he had the restricted social standing in the rigorous class system. He resisted the system with his progressive propensity and his writings and wanted to present what the society was to be. He had the chance participating in the official tour to Japan in 1. He left his works that was written in the course of the tour. The works contained the writer's consciousness of Japan that were important because they told us the view and characteristics of his literature. Among them, this study focussed on 3 works such as Ilgido, . He had many backgrounds to accept foreign things and have a global view. I can say his family background as an official interpreter and his academic history such as a realistic school. Eun-Jin Lee wrote a realistic poem of Japan that was not easy to Chosun writers because they had prejudice against Japan. However, Lee Eun-Jin wanted to change the prejudice that made Chosun avoid the reality and be out of step with the times. This thesis has three major parts including the formal characteristics, substance and the analysis of works. In order to take attention of the major class of the society, Eun-Jin Lee used the

literary form of Chinese poetry which is familiar to high ranking officials in the society. He did not want to write the official report. He expressed his mind, emotion, life, with this form. Because the message he wanted to deliver was kind of severe criticism to them, the form worked as a kind of sugar coated in pill. Eun-Jin Lee had an objective eye for Japan. He described the details in Japan. In analyzing the three works, he realized that Japan was not what the Chosun society with a prejudiced viewpoint thought as. He did not have a sense of cultural superiority to Japanese culture. He wanted Chosun society to face up to the reality in Japan and accept it. Specially, His message was that Chosun should recognize the current of the World through Japan and accept the change. Eun-Jin Lee did much for diverse viewpoints of Japan and open mind to the World. Hereafter, Chosun society should face the modern change that Japan experienced in advance. His consciousness of Japan in the works was kind of vision leading the late 18C Chosun society. He merged the objective and open recognition for Japan with Chinese poetry form.

